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2013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배 영 애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채영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배영애

배영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22일



주 심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학 박사 권 성 미 (인)

위 원 문학 박사 채 영 희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7
II. 이론적 배경	11
1. 문화 간 의사소통 연구	11
가.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11
나.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개념	14
다. 문화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	15
2. 한국인의 의사소통	18
가. 한국인의 가치관과 언어 표현	18
나. 한국인의 비언어적 표현	21
III. 연구 방법	23
1.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한 정의	23
2. 연구의 범위와 방향	25
3. 연구 대상과 방법	27
IV. 울산 지역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요구 분석	31
1. 울산 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	31
2.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36
가. 조사 대상의 분포	36
나. 조사 내용과 결과 분석	43
V.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53
1.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	53
2. 한국어 문화 항목의 선정 기준	67
가. 문화 범주	68

나. 문화 항목 내용	74
3. 한국어 문화 항목의 선정	79
4.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84
가. 교수 상황	86
나. 교수-학습 방안	88
VI. 결론	96
■ 참고문헌 ■	99
■ 부록 < 설문조사 > ■	106



■ 표 목 차 ■

【표1】 초급의 한국 문화 항목	28
【표2】 설문지의 내용 구성	30
【표3】 2012학년도 울산 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참여 교육 활동	32
【표4】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전연수 교과목 편성 계획	34
【표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수능력향상 직무연수 교과목 편성 계획	35
【표6】 연수가 한국 학생 지도에 미치는 도움 정도	44
【표7】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45
【표8】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46
【표9】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	47
【표10】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이유	47
【표11】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싶은 항목 순위	48
【표12】 지역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싶은 항목 순위	51
【표13】 권성미(2010)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	57
【표14】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의 목표	58
【표15】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의 평가 목표	59
【표16】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목표(1-2급)	61
【표17】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 기술(문화영역 1-2급)	62
【표18】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영역 하위 요소 등급별 목표 기술(1-2급)	63
【표1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목표	64
【표20】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론 개요	69
【표21】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1)	70
【표22】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2)	71
【표23】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3)	72
【표24】 초급 단계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문화 항목	74
【표25】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교육 항목(1급)	75
【표26】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교육 항목(2급)	76
【표2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항목	80
【표28】 본 연구의 학습자 변인	87

【표29】 교수-학습 방안 1	90
【표30】 교수-학습 방안 2	92
【표31】 교수-학습 방안 3	94



■ 그림 목차

【그림1】 설문응답자 성별 분포 36

【그림2】 설문응답자 연령 분포 37

【그림3】 설문응답자 소지 학위 38

【그림4】 설문응답자 국적 38

【그림5】 한국에서의 교육 경력 39

【그림6】 설문응답자 소지 자격 40

【그림7】 설문응답자 한국어 실력 41

【그림8】 한국 문화 관련 지식 42

【그림9】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연수 경험 43

【그림10】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가 여부 46

【그림11】 지역 문화 교육 프로그램 필요 여부 50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Korean Language Culture
for The Native English Speaking Assistant Teachers

Young Ae Bae

*Department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mands from native English-speaking assistant teachers, and find the items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and a relevant education plan that help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to adapt themselves to Korean society and Korean schools, increase the efficiency of English class, and have positive thinking about Korea and promote Korea after they return to their own countries.

This work examined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English-speaking assistant teachers and students and the job satisfaction and job environment of the native English-speaking assistant teachers. For this work, this researcher analyzed the demands from native English-speaking assistant teachers working in Ulsan, and chose the items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for them on the basis of Standard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for International Use.

As for the choice of cultural items, culture was divided into six categories: language life, everyday life, vocational life, Korean society, Korean cultural heritages, and Korean history. The six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23 sub-categories. After that, cultural items related to each sub-category were chosen. The cultural items suggested in this work were something needed for native English-speaking assistant teachers on the basis of the beginning level of Standard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for International Use.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work environment of the assistant teachers, this researcher added cultural items necessary for job performance regardless of level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tandard.

For a plan of teach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native English-speaking assistant teachers, this researcher analyzed teaching circumstances and then proposed a teaching-learning plan through cultural experience with a step-before-learning, a learning step, and a step-after-learning, which includes the factors of cultural knowledge, cultural performance, and cultural perspectives. In addition, this work proposed a learning plan of associating with more than two cultural items according to a learning period, and suggested that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re allowed in class.

This work is meaningful in the points that it separate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from Korean language learning circumstances and then chose cultural items that would be able to be learned by native English-speaking assistant teachers who are

not in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circumstance, and that it found a relevant education plan. Most discussions have been made about the parallel teaching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But, this work, regardless of Korean language learning circumstances, chose cultural items that could be learned by native English-speaking assistant teachers who need to learn Korean culture. In addition, because this work chose cultural items on the basis of Standard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for International Use, it more increased objectivity than the studies conducted before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ized model.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목표아래 1995년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프로그램(English Program In Korea: EPIK)¹⁾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자료²⁾로 제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현황을 보면 2009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영어교육에 투입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7,088명이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3,688명으로 투입된 전체인원의 50% 이상이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의 목적은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을 길러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고 영어 교수 기법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영어공교육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므로 EPIK 사업이 도입된 이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학생사이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협력수업에 관한 효과

1) 공교육 기관인 사립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은 4가지이다. 지방자체 또는 학교 자체에서, 미국대사관 소속의 한미연합교육재단인 Fulbright에서 운영하는 ETA,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EPIK, 그리고 Talk에서 원어민 영어보조사를 채용하고 있다(2009, 정매라).

EPIK는 한국의 국공립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다.

2) 전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009.04.30현재)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계	3,668명	2,153명	1,086명	181명	7,088명

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강남준 외(2008)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에서의 학생들이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언제나 이해(80~100%)는 20.4%, 내용에 따라 이해(60~80%)는 37.5%, 절반 쯤 이해(30~60%)는 25.4%, 대체로 이해하지 못함(20~30%)은 10.8%, 전혀 이해하지 못함은 6.0%인 것으로 나타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수업 중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음을 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영어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최희경, 2010: 57).

Gass와 Varonis(1991)³⁾는 의사소통 단절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언어적 어려움과 문화 간 차이라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yu Hoyeol(2003)은 초보 수준의 대학생 영어 회화 수업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단절을 일으키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학생의 목표어에 대한 불충분한 언어 능력과 학습자와 원어민 교수자 사이의 문화적 오해라고 하였다. 또한 Ryu Hoyeol(2003)은 원어민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생의 모문화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지식은 학생이 목표어 문화를 모르는 것보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더 방해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원어민 교사는 목표어 문화에 대해 정확한 지도나 공적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생이 목표어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 단절면에서 볼 때 덜 문제가 되는 반면,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 설명할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가 학생의 문화에 대해 가진 부족한 지식은 의사소통 단절로 이르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지

3) Gass, S. M. & Varonis, E. M. (1991). *Miscommunication in nonnative discourse*. Newbury park, CA: Sage. (최희경 외(2010:55), 재인용)

적하였다.

한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직무만족도나 환경에 관한 실태연구들⁴⁾에서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가장 시급한 강좌와 부족한 강좌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를 들고 있고 한국 협력 교사들은 수업 현장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을 부실하게 보고 근무 전 연수에서 충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국 생활과 한국 학교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장벽이고 다음으로 동료교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문화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오해라는 것이다.

실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사업을 주관하는 EPIK 한국어 문화 교육 현황⁵⁾을 살펴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 국

4) 김선정(2003), 김춘희(2007), 이진경(2006), 이재영(2007), 윤미진(2007), 김민선(2008), 조원태(2008), 김은주(2008), 이정임(2008)

5) EPIK 홈페이지(<http://www.epik.go.kr/>)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샘플-Main Onsite Orientation)

No	Title
1	Arrival at Incheon Airport & Registraton
2	Preparation & Opening Ceremony
3~4	Medical Checkup & Class Meeing Lectures : Life as an EPIK teacher, Classroom Management,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Task Based Learning
5	Field Trip: Korean Cultural Experiences
6	English Teaching Skills: Listening/Speaking/Reading/Writing
7	Elementary & Secondary English Education in Korea Exploring Korea, How to teach Pronunciation
8	How to Co-teach, Teaching Songs & Chants, Model Classes, Making Lesson Plans
9	Lesson Plan and Presentation, Meeting with POE(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upervisors
10	Questionnaire & Closing Ceremony Escorted to Each POE

재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도착한 첫날을 제외한 9일 동안의 일정에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수 일에는 교수법, 학교에서 업무와 관련된 안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비영어권의 유럽과 아시아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JET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와 중국 深圳의 'English Teaching Program in Shenzhen in China'가 있다.

JET의 ALT(Assistant Language Teacher) 자격조건⁶⁾에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며 관심을 계속 개발할 것과 일본어 학습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프로그램⁷⁾을 계획하여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JET에서는 ALT(Assistant Language Teacher) 대상자에게 입국 전과 입국 후로 나누어 연수를 시행한다. 입국 전에는 ALT(Assistant Language Teacher) 합격자의 국적이 있는 국가의 일본 재외공관에서 시행되는데, Q&A 활동으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착 직후 오리엔테이션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하며 생활하고 근무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일본의 문화 이해가 중심이 된다. 특이한 사항은 JET에서는 계약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위한 연수도 마련되어 있다. 본국에 돌아가서 생활에 적응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행하는데, 희망자는 JET 참가자 친목 단체인 JET-AA(JET Alumni Association)에 등록하며 이들은 새로운 참가자 모집과 사후 일본홍보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7년에 시작하여 2008년까지 약 50,000명의 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JET-AA에 등록되어 있다(정매라,

6) 2009 ALT 응모자 자격기준 (송지숙(2010:31) 표 인용)

2009:9~10).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EPIK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

- ① 일본에 관심이 있고 도일한 후에도 일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 지역사회에서 국제교류 활동에 참가할 의욕이 있을 것.
- ② 심신이 건강한 자.
- ③ 일본에서 직무에 종사하고 생활에 적응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 ④ 일본의 법령을 준수할 것.
- ⑤ 범죄에 관련한 형벌 등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응모 시까지 집행유예가 끝나야 함.
- ⑥ 지원 대사관 소재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영주권을 가진 자는 제외)
- ⑦ 청년교류 프로그램의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연령이 만 40세 미만일 것.
- ⑧ 해당 언어의 발음, 리듬, 억양, 발성이 뛰어나며 기본적인 해당언어의 기능을 소유하고 문장력, 문법력이 뛰어날 것.
- ⑨ 2007년 이후 JET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을 것.
- ⑩ 전년도에 JET프로그램에 합격하고, 배치처 결정 통지 후 사퇴한 자가 아닐 것. 단, 부득이한 이유라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⑪ 응모 시까지 2000년 이후 합계하여 6년 이상에 걸쳐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것.
- ⑫ JET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2조2에 정해진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것에 동의할 것.
- ⑬ 대학의 학사 취득자(4년제 대학), 또는 지정 도일일까지 취득 예정인 자.
- ⑭ 일본어능력시험(JLPT1급)의 실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⑮ 일본어의 실용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⑯ 일본에 있어서의 교육, 특히 일본어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것.
- ⑰ 적극적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의욕이 있을 것.
- ⑱ 어학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어학 교육」에 열의가 있는 자.
합격자는 일본어를 배울 노력을 할 것과 계속해서 학습할 것이 기대된다.

7) JET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jetprogram.org> 참고

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한국어 교육의 특정목적 중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⁸⁾의 대상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단순 근로자(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종사자)와는 근무현장과 상황, 관심이 다르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울산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수업의 효율을 높이며 나아가 귀국 후에는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는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항목을 선정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8) 이미혜(2008)는 특정 직업을 위해 한국어를 교수 ·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 직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 모두가 교육 대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순 근로자(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종사자)와 전문 근로자(교육 분야 종사자, 무역 · 경영 분야 종사자, 연구원)로 구분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전문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 항목 선정과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에는 김정선(2004), 정매라(2009), 송지숙(2010)의 선행 연구가 있다.

김정선(2004)은 경기도 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협력 교사의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는 교내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 교외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 문화 적응과 학생 지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화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수업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연구자의 수업 관찰에 나타난 학생들의 의견만 일부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정매라(2009)는 강릉시 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명(남 4명, 여 1명)을 심층 면담하여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영어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유교권의 문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교사와 한국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 생활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언어숙달과 함께 한국의 일상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문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소극적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송지숙(2010)은 경기도 중등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필요성 및 배우고 싶은 항목과 내용에 관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한국어 문화 교육 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을 따로 받기 어려운 대상이라 의사소통기능과 문화 항목을 통합적으로 배열한다는 언급은 있으나 한국어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문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수업언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구체적인 교육 방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남현(2001)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50명과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가장 중요한 학습의 동기가 한국 문화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의 필요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사실자료(광고, 화폐, 만화, 신문)를 이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하여 할 문화 항목에 대한 선정 없이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만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조현용(2003)은 ‘한국어 문화 교육’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전통 문화, 대중문화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문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어문화 교육’은 언어적인 측면과 관련된 문화 내용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구별하고, 직접적인 교육 방법(언어 예절, 어원, 관용표

현)과 간접적인 교육 방법(독해나 대화 지문, 토론 주제, 역할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반드시 한국어 학습과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 자체가 한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언어적인 측면과 관련된 문화 내용은 광의의 문화 교육보다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임경순(2005)은 문화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수단을 넘어서 문화 분석 능력, 개인의 성장, 지식의 습득, 평생 학습의 태도, 문화 간의 이해와 조화 모색 등의 차원까지 확대 해석하고 주제 중심 접근법(themebased approach)⁹⁾으로 주제 중심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제 중심 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예라고 하기에는 그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언급한 내용도 극히 제한적이다.

오세인(2004), 임금복(2009), 구선희 외(2008), 금지아(2010), 이희정(2012)은 시, 영화, 전래동화, 현대 단편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항록(2010)에 의하면 문학 작품은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문화교육의 방법이지만 주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교사는 작품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 적절한 선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교사의 능력에 따라 수업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며 문학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9) 다양한 자료, 활동, 교과를 넘나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학습자들이 모든 차원의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학습을 신장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D. N. Wolfinger & J. W. Stockard(1997), *Elementary Methods: An Intergrated Curriculum*, New York: Longman(임경순(2005: 12) 재인용)

또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학습자를 특정 대상으로 정하여 제시한 경우도 있다. 김정선(2004), 정매라(2009), 송지숙(2010)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구선희 외(2008)는 결혼이민자, 금지아(2010)는 중국인 학습자, 조옥이(2011)는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이희정(2012)은 재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가 증가하면서 학습자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또 다른 모색으로는 권성미(2010), 이은숙(2010)의 연구가 있다. 권성미(2010)는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적과 절차적 목표를 설정하고, 참여적 교수 방안의 일환으로 TV 드라마와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학습자 참여적 한국어 문화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은숙(2010)은 교실을 넘어선 문화 체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현장 체험 중심의 문화교육을 연구하면서 과연 체험 교육에서도 언어 교육 통합론의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언어 학습과의 통합론과 분리론을 넘어서는 지역학적 관점과 신명풀이 미학 수용 형태로 시행되는 문화 체험 교육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문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권성미(2010)와 이은숙(2010)은 포트폴리오와 외국인들이 흔히 하는 문화 체험 교육에 대한 연구로 학습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의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한 시사점은 한국어 문화 교육의 범주, 교육 항목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한 각각의 논의만 활발하며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 방안들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 간 의사소통 연구

가.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1970년대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외국어 교육에서 중시된 것은 언어학적 능력이었다.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 (CLT: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 외국어 교수법의 중심이 된 후로는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문화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대두되었다.

Brooks(1975)¹⁰⁾는 문화를 넓은 의미의 문화인 인간 생활의 모든 것 (everything in human life)과 인간 생활 중의 최상의 것(best in human life)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전자는 흔히 말하는 little C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후자는 big C에 해당한다. Hendon(1980)¹¹⁾은 문화를 big C와 little C로 구분하면서 고급 문명의 성과들인 big C는 주로 과거와 관련되고 little C는 일상 생활문화 중심으로서 현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Adaskou, Britten and Fahsi(1990)¹²⁾는 이전에 전개되었던 문화에

10) 11) 12) Brooks, Nelson.(1975), The Analysis of Foreign and Familiar Cultures, In Robert Lafayette ed.,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incolnwood, ILL.: National Textbook.

Hendon, Ursula S.(1980), Introducing Culture in Elementary College Language Classes, Modern Language Journal 64(2).

Adaskou, K., Britten, D. & Fahsi, B. (1990), Design decisions on the cultural content of a secondary English course for Morocco, ELT Journal 44(1). (조항록 (2010: 298), 재인용)

대한 수많은 정의를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심미적 의미의 문화(Aesthetic sense), 사회학적 의미의 문화(Sociological sense), 의미론적 의미의 문화(Semantic sense), 화용론 또는 사회언어학적 의미의 문화(Pragmatic or sociological sense)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심미적 의미의 문화란 흔히 말하는 big C로 여기에는 문학을 비롯하여 미디어, 영화, 음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학적 의미의 문화란 흔히 말하는 little C로서 여기에는 가족, 가정생활 및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맺는 조직과 그러한 조직들의 성격이 포함된다. 그리고 의미론적 의미의 문화란 사람들의 인식 및 사고 처리 과정의 중심을 이루는 것들로서 주로 사람의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 체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화용론 또는 사회언어학적 의미의 문화는 언어 습득과 더불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배경 지식, 사회성 및 언어 분석적 기술 등을 일컫는다.

Tomalin & Stempleski(1993)¹³와 Vallette(1995)¹⁴는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었던 성취문화와 행위문화에 대한 재정리를 시도하였는데 대체로 행위문화와 성취문화로 나누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Tomalin & Stempleski는 문화를 역사, 지리, 제도, 문학, 미술, 음악, 생활 방식 등과 같이 그 사회 구성원이 성취한 총체적인 문물(big C)과 일반 행위문화(little C)로 나누고 그 중에서 언어생활과 생활 공동체에서 접하는 행위문화(little C)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반 행위문화를 확대 규정하여 구성요소를 산물(문학, 민속, 미술, 음악, 가공품), 관념(신념, 가치관, 제도), 행위(관습, 습관, 옷, 음식, 레저)를 포함하였다. 역시 문화의 구성 요소를 인류학적, 사회학적 문화와 문명의 발달사라는

13) 14) Tomalin, Barry & Stempleski, Susan(1993), Cultural Awar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Valette, Rebecca M.(1995), The Culture Test, in Valdes, Joyce Merrill, ed. Culture B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조항록(2010: 299), 재인용)

두 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전자에는 태도, 관습, 일상생활, 사고방식, 가치 판단 기준 등이 속하며 후자에는 지리, 역사, 과학, 사회과학, 예술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의 성취가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조항록, 2010: 298~300).

조항록(2010)은 외국어 교육의 1차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으로 삼고, 문화를 독립적으로 논의하면서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를 언어문화, 일상 생활문화, 성취문화로 분류하였다.

언어문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협의의 언어문화는 형태, 음운, 통사 등과 같은 언어 내적 요소로부터 장르별 문학 작품 등과 같은 언어적 산물 등을 지칭하며, 광의의 언어문화는 언어사회학, 사회언어학 등에서 논의하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화까지를 포함한다.

일상 생활문화는 little C라고 불리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위의 모든 것(언어적, 비언어적 행위),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을 의미한다. 구성원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성취문화는 big C라고 불리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이 역사적으로 삶을 영위해 오면서 성취한 문물을 의미한다. 문학, 예술, 무용, 전통음악, 제도, 건축물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채택한 문화에 대한 정의는 미국의 외국어 학습의 국가 표준 안-5C(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¹⁵⁾에서 살펴볼 수 있다. 5C는 언어 교육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이나 사회적인 필요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문화 분석 능력과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까지 포함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15) 5C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다문화사회참여(communities), 문화(culture), 비교(comparisons), 연계(connections)를 뜻한다.(한선, 2011:10)

또한 앞에서 논의해 온 문화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신인아(2001)는 성공적인 문화 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문화 개념의 출발점은 문화는 분석을 통해서 배워진다는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어를 배우는 성인학습자의 경우 어린아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장시간의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없으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신인아(2001)의 이러한 관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한 본 연구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나.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개념

‘Intercultural Communiation’¹⁶⁾이란 용어는 1959년 Edward T.Hall의 저서인 “The Silent Language”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 Hall은 문화 간 의사소통을 ‘다른 문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하였다. 홍기선(1989)은 한 문화와 다른 문화가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의사소통을 문화 의사소통으로 정의하고 지금까지의 문화 의사소통의 정의에 관한 연구 경향을 거시적(macro)차원과 미시적(micro)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거시적 차원의 문화 의사소통의 연구는 주로 문화와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화 접촉 · 문화 전달 · 문화 전파 · 문화 이식 등의 과정과 현상에 관심을 두며 미시적 차원의 문화 의사소통의 연구는 언어 · 가치관 · 관습 등이 다른 개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상호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의미를 공유하여 서로를 이해하는가에 관심을 둔다고 하였다. 거시적 · 미시적 차원의 문화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주제나 대상을 개인으로 보는가 또는 문화 자체로 보는가에서 차이가 날 뿐, 문화의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을 다룬다는 점에

16) 본 연구에서는 ‘Intercultural Communiation’를 ‘문화 간 의사소통’으로 번역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서는 같다고 논의하였다(김정선, 2004).

다. 문화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문화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으로 많은 것이 논의¹⁷⁾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언어적 표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많은 단어를 배우지만 모국어의 언어적 표현 방식과 같이 외국어에서 배운 단어를 조합하여 표현하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¹⁸⁾ 이처럼 언어적 표현 속에는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뜻 이외에 문화적인 배경이나 언어적 습관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2011)은 문화권에 따라 대화의 선호도, 발화권 관리, 맞장구 표현, 사과/ 칭찬/ 권유 표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arnlund(1989)는 모르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서양문화권(미국/유럽)과 동양문화권(한국/일본/중국)의 태도가 다름을 제시하고 있다. 이

17) Gudykunst & Hammer(1988)는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요인으로 ‘이 문화에 대한 지식/ 우호적 접촉/ 비언어와 언어능력’ 을 제시하고 있다. Koester & Olebe(1988)는 상대문화 존중과 지식, 상호작용, 모호성에 대한 내성, 관계를 지속하는 능력을 제시하였고, Hannigan(1990)은 이문화에 대한 공감/ 의사소통기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을 제시하였다.(김정선 (2011: 43 재인용))

18)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 맞게 작문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잘못된 영어 표현을 일컫는 ‘콩글리쉬(Konglish)’ 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조사에 따르면 서양문화권의 사람은 모르는 상대와 의사소통하는 빈도가 동양문화권의 두 배 가까이 된다고 한다. 다른 예로 Yoshikawa(1984)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상대방에게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지만 미국인은 자신의 불만이나 화가 난 이유를 가능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대화를 시도한다(김정은, 2011: 46~47).

또한 발화권의 관리에 있어서도 문화권 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솔직히 표현¹⁹⁾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화를 주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일본에서도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발화권이 잘 주어지지 않는 특징이 나타난다.

맞장구 표현에서도 문화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김정은(2011)은 한국과 일본인의 맞장구 빈도가 높은 것은 대화 참여자가 맞장구에 대한 기대가 높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양문화권에서는 맞장구 빈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맞장구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성가시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적 표현에서도 문화권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언어적 표현의 차이가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 방안을 모색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2) 비언어적 표현

사람들은 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²⁰⁾ 비언

19) 정현숙(2001)은 수업 시간 중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국 학생들, 상사가 참여하는 스태프 미팅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는 말단 사원, 3살짜리 딸에게도 의견을 물어보는 엄마를 예로 들고 있다.

어적인 표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몸짓은 비언어 행위 중 어느 것보다도 다양한 기능을 하여 행위자의 정체를 알리고,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몸짓 중에는 문화권 어디에서나 발견되지만 전달하는 의미가 다른 몸짓이 있는가 하면, 상이한 몸짓이 문화권이 달라도 한 가지 의미를 지닌 몸짓도 있다.²⁰⁾ 비언어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가지 몸짓이 문화권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몸짓을 복합 신호 몸짓(multi-signal gesture)이라고 하며 상이한 몸짓이 문화권이 달라도 한 가지 의미를 전달할 때 이를 복합 몸짓 신호(multi-gesture signal)라고 부른다(최윤희, 2001: 212).

신체 접촉 중 여러 문화권에서 하는 악수를 보더라도 문화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악수보다는 머리를 숙이는 인사를 선호하고,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스페인 등에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포옹을 더 선호하며 악수는 일반적인 인사 방법으로 여겨진다.

대화 중에 이루어지는 접촉도 미국인들은 신체 접촉이 거의 없으나 중동 지역에서는 신체 접촉이 많은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침묵, 얼굴표정, 대인 거리와 공간, 시간 개념 등의 비언어적 표현에 관한 연구에서도 문화 간의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 최윤희(2001)는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으로 정체성 확인의 기능, 관계 설정 기능, 감정의 표현 기능, 정보 교환 기능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21) 최윤희(2001)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는 몸짓이 미국인은 'OK', '훌륭하다(fine)', '완전하다(perfect)' 라는 의미이지만 일본에서는 돈을 가리키며, 프랑스에서는 '0', '별 볼일 없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2. 한국인의 의사소통

가. 한국인의 가치관과 언어 표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동기는 욕구 성취, 가치관 표현, 인간관계 유지와 인지 일관성 유지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김숙현, 2001: 64).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나라의 가치관이 반영된다.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문화권의 가치관을 알고 가치관에 따라 다른 언어적 표현을 살펴두는 것도 유의미한 활동이다.

다음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특징과 언어적 표현을 연관 지어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특성을 김숙현(2001)이 소개한 몇 가지 모델 중 고맥락/저맥락 문화차원²²⁾과 Hofstede(1991)의 문화차원²³⁾의 4가지 중 가장 한국적인 문화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두 요소인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 차이의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2) Hall(1976)에서는 세계의 주요 국가 문화를 상황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비교하였는데 상황 비의존적 문화 체계에 속하는 나라로 미국, 독일,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제국, 그 밖의 북유럽 여러 나라를 들었으며 상황 의존적 문화 체계에 속하는 나라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중동 국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상황 의존적 문화 체계가 가장 강한 나라(김정선(2004: 33), 재인용)

23) 네덜란드의 경영학자인 호프스테드(G. Hofstede(1991))는 세계 각처에서 일하는 IBM직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간의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문화적 가치 체계를 제시하였다. 네 가지 체계는 ‘집단주의/개인주의’, ‘권력 차이의 큼/작음’, ‘불확실성 회피의 높음/낮음’, ‘남성상/여성상’이다.(김숙현(2001: 68) 참고)

(1) 집단주의

Hofstede(1991)에 의하면 한국은 개인주의 성향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문화로 분류하고 있다. 집단주의 문화권의 가치관은 인간관계를 업무보다 우선으로 하며 업무에 있어서도 ‘인화’를 우선으로 본다. 또한 유교적 전통으로 인하여 체면을 중시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간접적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이러한 집단주의에서 나온 언어문화를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의식이 강하여 ‘my wife’ 대신 ‘우리 마누라’, ‘my house’ 대신 ‘우리 집’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또한 체면과 인화를 중시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아니오’ 대신 ‘글쎄’, ‘고려해 보겠다’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유보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이 ‘예’, ‘아니오’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 고맥락 문화

다음으로 한국 문화의 특징은 고맥락 문화이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집단주의적 가치관 가지고 있으며 간접적 의사소통의 형태로 나선형, 원형 논리²⁴⁾를 강조한다. 또한 단순하고 모호한 형태의 메시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한국적 의사소통 양식은 고맥락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화에서는 상황을 중시하며 ‘눈치’, ‘감’, ‘기분’ 같은 것에 민감해야 하고 감정 지향적이며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24)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김숙현, 2001: 80).

환경·상황·제스처·분위기 등을 감안해야 한다.

고맥락 문화에서 나타나는 언어 표현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회적·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인은 상대방의 부탁이나 제의를 거절하게 될 때 대답을 명확하게 말하는 대신 ‘글쎄요’, ‘곤란한데요’, ‘두고 봅시다’ 등으로 표현하거나 때로는 침묵이나 미소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맥락 문화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단주의와 같은 언어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고맥락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공통적 경험이 많은 집단내의 구성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집단 외의 구성원들에게는 의사소통의 큰 장애 요소이기도 하다.

(3) 권력 차이의 정도

한국 문화는 위계질서를 중요시하고 권력의 차이가 큰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이·성별·지위 등의 수직적 상하 관계로 구별하기를 즐긴다. 수직적 상하관계에서는 서열과 격식을 중시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권력 차이 앞에서 순응적이고 긍정적 답변과 소극적 의사표현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호칭과 존대법이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에서는 영어로 ‘you’ 에 해당되는 표현이 상대방의 연령, 지위, 상황을 고려하여 ‘너/자네/당신/그대/댁/어름/임자/영감/각하/선생/귀하’ 등으로 세분된다(김정은, 2011: 34).

그러므로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의 계층적 지위에 알맞은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여야만 한국인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지위에 적절하지 못한 언어 사용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지나친 형식적인 표현이나 존대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손님과 판매원의 사이에서 물건이나 색깔, 가격에도 잘못 된 존대법을 사용하여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연장자나 직장 상사의 경우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직함에다 「님」, 「선생님」을 덧붙여 부르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나. 한국인의 비언어적 표현²⁵⁾

몸짓은 비언어 행위 중 어느 것보다도 다양한 기능을 하여 행위자의 정체를 알리고,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김숙현, 2001: 211).

이러한 몸짓의 대표적인 예가 인사 방식이다. 한국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우선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한다. 머리를 들고 인사를 하는 서양 사람들의 인사 방식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건방진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통 몸의 자세를 낮게 구부려 하는 인사일수록 보다 큰 존경의 뜻이 된다.

신체 접촉면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즐겨하는 편이다. 한국 여성들이 동성 간에 손을 잡고 걷는 행위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문화 충격이 되기도 한다.

시선 접촉에 있어서도 유교문화가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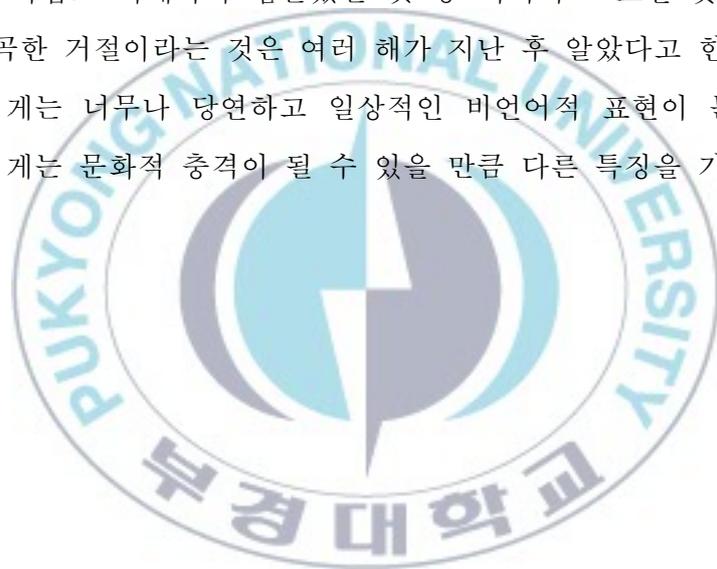
25) 조현용(2003)은 비언어적 행위 관련 한국어 표현 교육 연구를 논의하면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비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신체부위별(머리, 눈, 코, 입, 목/고개, 가슴, 손/팔, 어깨, 배꼽/허리, 무릎, 기타) 비언어적 행위 관련 교육용 관용 표현을 정리하였다.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대응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므로 연장자나 상급자의 눈을 응시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도 한국 학생과의 수업에서 한국 학생들이 교사의 눈을 피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간접적인 소통을 선호하므로 침묵이나 미소로 언어적 표현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상도 5대 독자와 결혼한 미국 여성²⁶⁾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참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묘한 웃음’ 이었고, 미소가 완곡한 거절이라는 것은 여러 해가 지난 후 알았다고 한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비언어적 표현이 문화가 다른 학습자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 될 수 있을 만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6) 김숙현(2001: 74)은 ‘김린’ 이라고 실명을 밝히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한 정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조현용(2003)은 ‘한국어 문화 교육’과 ‘한국어문화교육’이 단순히 띄어쓰기의 문제가 아닌 개념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구별되어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현용(2003)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어 문화 교육’은 광의의 문화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언어적인 측면과 관련이 없는 전통 문화, 대중문화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국어문화교육’은 직접적으로 한국어와 관련이 있는 문화 내용만을 한정지어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반드시 한국어 학습과 관련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화 교육’으로 표기하므로 조현용(2003)의 정의에 따르면 광의의 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화 교육’을 조현용(2003)이 제시한 것보다 개념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한다. 조현용(2003)은 광의의 문화 교육인 ‘한국어 문화 교육’도 한국어 학습 상황에서 언어적인 측면과 관련이 없는 다른 문화 내용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한국 문화 내용을 교육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 대상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한국어 학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의 영위는 물론이고 한국 학생들도 가르쳐야하는 직장 생활도 계속하여야 한

다. 본인의 한국어 학습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배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 상황에서의 문화 교육으로 ‘한국어 문화 교육’을 정의한다면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는 문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 문화 교육’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한국 문화의 범주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단기간 체류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는 문화 자체보다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한국어 학습상황에서 연구한 문화 범주들을 참고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필요한 문화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향

본 연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 대상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모국으로 돌아가는 단기 체류자들이고,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직업 목적 체류자이다. 또한 이들의 채용목적이 모국어인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직장 내에서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협력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 있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한 적극성을 가질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하는 학습자들과는 문화 항목 선정과 교육 방안에서도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첫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문화 항목은 언어 교육과 통합적인 항목, 언어 교육과 분리된 항목을 모두 선정하려고 한다. 앞서 ‘한국어 문화교육’의 정의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한국어 수준이 초급이라 하더라도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므로 한국 문화와 모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한국어 수준과 관계없이 요구되는 문화 내용은 언어 교육과 분리 될 수도 있다.

둘째, 수업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영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에서 교육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한국에 도착 후 열흘 정도의 사전 교육²⁷⁾이 끝나면 근무지역으로 이동하여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문화 교육이 한국어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셋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한국어 실력이 초급학습자(1~2급)라는 가정 아래에서 논의를 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이지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 중에는 재계약을 통해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어서, 자연 습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익숙하여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짧아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한정지어 연구하려고 한다.

넷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요구도 분석하여 문화 항목 선정에 반영하려고 한다. 객관적인 이론들을 검토하여 문화 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지역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요구를 분석하려고 한다.

27) 본문 3쪽 참고

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울산지역에는 있는 120개의 공립초등학교 중 분교 한 곳을 제외한 119개 공립초등학교 125명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 교사들을 통해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게 전달되었으며 직접배부,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간 동안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48명 (전체 125명의 38.4%)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지 작성을 위한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울산 지역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요구 조사 분석하고 한국어 문화 교육의 교육목표 설정과 한국어 문화 교육항목 선정 및 배열, 실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²⁸⁾

설문지 작성을 위한 문헌 연구는 선행연구인 김정선(2004), 송지숙(2010)의 설문 내용과 결과 분석을 참고하였고, 조항록(2000)이 한국어 초급에서 다루어야 할 한국어 문화 항목으로 제시한 【표1】의 열네 가지 항목을 설문 구성에 반영하였다.

28) 연구 절차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설문지 작성을 위한 문헌연구 → 설문지 작성 → 설문 조사 → 요구 조사 분석 → 교육목표 설정 → 교육항목 선정 및 배열 → 실제 교육 방안 제시)

【표1】 조금의 한국 문화 항목

문화 항목	세부 항목
한국의 문자,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의 창제자와 창제 시기 · 한국어의 문자 체계와 형태론적 특징 · 가족, 친척 호칭의 발달 · 고유어와 한자어의 병존
언어생활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의 겸양법, 경어법에 나타난 한국인의 대인 관계 규범 · 호칭의 적절한 사용 ·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적절한 사용
한국인의 의식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음식의 종류, 맛 · 한국 음식을 먹는 방법 · 한국인의 주거 형태 · 한국인의 가정의 구조 · 식당에서의 음식 주문 방법 및 음식 배달 방법 · 청소년의 음식 문화 · 한복
현대 한국인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전통 문화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통과 의례 중 돌과 결혼
한국의 공공 시설과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제도(공교육 기관의 종류와 학제) · 관공서 업무 시간 · 도서관, 체육관 이용 방법 · 전화번호 표기 방법
한국의 계절과 날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계절의 구분 · 계절별 날씨 · 현대 한국인의 계절 즐기기
한국인의 사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과 '우리' 의식 · 음식 값 지불과 한국인의 의식

한국인의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취미 활동 · 한국인의 주말 생활 · 여가 생활의 변천
한국인의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재래시장과 백화점 · 물건 값 깎기 · 신문의 대형 광고, 광고 전단지 읽기
한국인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시설 이용하기 · 출퇴근 시간 · 월급 체계(최근 늘어나는 연봉제와 함께) · 직장인의 취미 활동(동호인)과 회식
한국 사회의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 주고받기 · 웃어른에 대한 예절 · 식사 예절 · 초대와 방문 예절
한국의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교통 수단의 종류와 이용하기 · 서울의 교통 체증
숙박 시설물 소개,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숙, 여관 소개 · 호텔 이용하기
한국의 자연, 지리, 관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지리적 특징(위치, 크기, 인구 등) · 유명한 관광지 소개 (민속촌, 설악산, 경주, 제주도 등)

설문 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내용은 【표2】와 같이 4개의 범주로 나누어 모두 20개의 설문으로 구성하였는데, 지역 문화와 관련된 문항도 포함시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직접 생활하는 지역의 문화 정보에 관한 요구도 함께 조사해 보았다.

【표2】 설문지의 내용 구성²⁹⁾

범주	내용	문항수
인적사항	성별, 연령대, 학력, 국적, 한국에서의 교육경력, 소유자격증, 한국어능력, 한국 문화 이해도	8
연수경험	참가경험, 학생지도에 미치는 도움 정도	4
한국어문화 교육	필요여부, 참가의사, 참가/불참 이유, 배우고 싶은 항목	5
지역 문화	필요여부, 울산 지역과 관련하여 배우고 싶은 항목	3



29) 부록의 설문지 내용 참조

IV. 울산 지역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요구 분석

1. 울산 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수립한 2012학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기본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 울산 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215명이다.

1997년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을 시작하였는데, 1997년에 초청된 인원은 10명으로 소수였다. 2006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43명 초청, 2008년 전 초·중학교에 183명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었다. 2007년부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15명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울산의 공립초등학교에 125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 전 초·중·고교에 원어민 협력교사를 선정하여 울산생활 정착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정규 수업 이외에도 **【표3】**와 같은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표3】 2012학년도 울산 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참여 교육 활동

종류	세부내용	일정
단위 학교 방과 후 수업	- 각 단위 학교 별 세부 계획에 의거 실시	연중
거점 영어교육센터 일일체험학습	- 11개소 거점영어교육센터 일일 영어교육활동 체험 - 총 32회 운영	학기중 (’12.3월~’13.2월)
거점 영어교육센터 방과후 영어서당	- 11개소 거점영어교육센터 원어민 및 본교 원어민 28명 활용 - 학기중 연간 운영	학기중 (’12.3월~’13.2월)
거점 영어교육센터 일과후 영어서당	- 11개소 거점영어교육센터 원어민 및 인근학교 원어민 33명 내외 활용 - 학기중 연간운영	학기중 (’12.3월~’13.2월)
거점 영어교육센터 방학중 통학형 영어캠프	- 11개소 거점영어교육센터 원어민 및 인근학교 원어민 55명 내외 활용 - 방학 중 운영	8월(3주간) 1월(3주간)
영어독서프로그램운영	- 영어독서센터 활용	연중
찾아가는 영어마을	- 관내 원어민 4명/1회 (총 100명 활용) -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여행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말 및 방학 중(123회)
초등단계별 영어능력향상프로그램 말하기 평가 참여	- 관내 전 초등학교 원어민 106명 - 학기중 수업외 시간 활용	연중
심의·검토 위원 및 강사 활용	-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 컨설팅 - 영어교육 발전세미나 강사 - TEE인증제 수업 심사위원 등	’12.02월 ’12.04~11월 ’12.07월 실시 예정
교사 연수 및 원어민 연수 활용	- 초중등교사 직무연수에 활용 - 영어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	어학원의 연간일정에 의거 실시

	한 회화연수 - 원어민 사전·심화연수 운영	
초·중등학생 영어회화교실 운영	-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 - 영어구사력 우수학생 조기 발견, 능력과 소질에 맞는 양질의 교육 실시	어학원의 연간일정에 의거 실시

또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전연수를 1기(2월), 2기(8월)로 나누어 50시간씩 실시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교수능력향상 직무연수를 1기(5월), 2기(10월)로 나누어 12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능력향상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연수를 실시하므로 【표4】와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교육은 교양교직 영역으로 2~3개의 교과목만 개설되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4】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전연수 교과목 편성 계획³⁰⁾

영역	교과목
교양 교직	· 한국문화 및 소리 이해
	· 한국문화 및 울산 옹기 체험
	· 울산시티투어
전공	· EFL상황에서 효율적인 영어말하기 수업 전략
	· 학습지도안 작성요령
	· 팀티칭을 통한 효율적인 영어말하기 수업 전략
	· 학습동기유발을 위한 학습자료 제작
	· 수업시연 및 Feedback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 방과 후 수업과정 안내
	· 한국생활 적응하기
	· Easy ways to Teach Reading
	· How to teach with co-teacher

30)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ula.use.go.kr> 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

【표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수능력향상 직무연수 교과목 편성 계획

영역	교과목
교양 교직	· 한국문화의 이해 및 체험
	· Get to know Ulsan and schools
전공	· How to teach with co-teacher
	· 학습지도안 작성요령
	· 팀티칭을 통한 효율적인 영어말하기 수업 전략
	· 학습동기유발을 위한 학습자료 제작
	· 수업시연 및 Feedback
	· Reinforcing English with Foldables
	· Enhancing Speaking and Writing in an EFL
	· EFL상황에서 효율적인 영어말하기 수업 전략
	· EFL상황에서 효율적인 영어말하기 수업 전략
	· Interesting English Class through Games and activities

2.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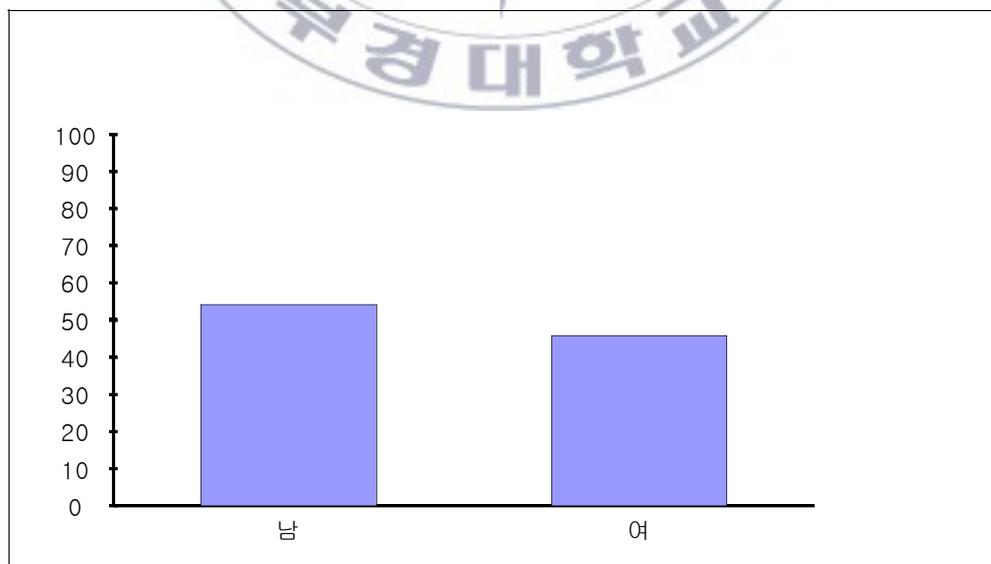
가. 조사 대상의 분포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48명이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125명이며 설문에 참여한 수는 전체 125명의 38.4%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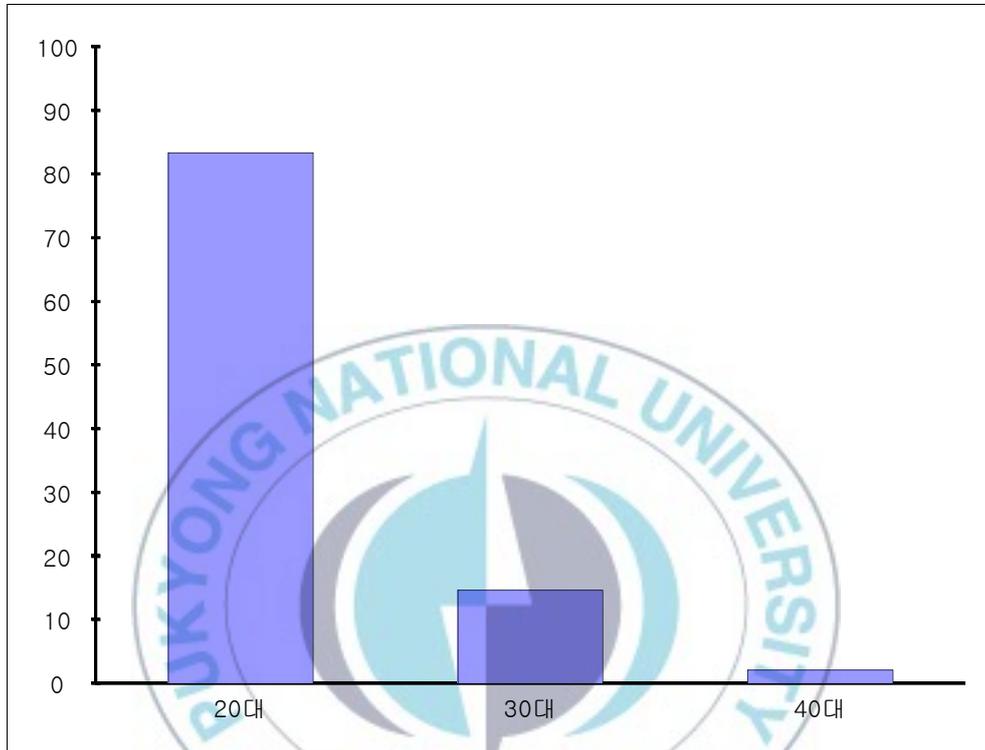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8명의 성별, 연령, 소지학위, 국적, 한국에서의 근무 경력, 소지자격, 한국어실력, 한국문화에 관한 지식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성별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이 48명 중 남자는 26명, 여자는 22명이다. 연령은 20대가 40명, 30대가 7명, 40대가 1명으로 약 83%이상이 20대였다.

【그림1】 설문응답자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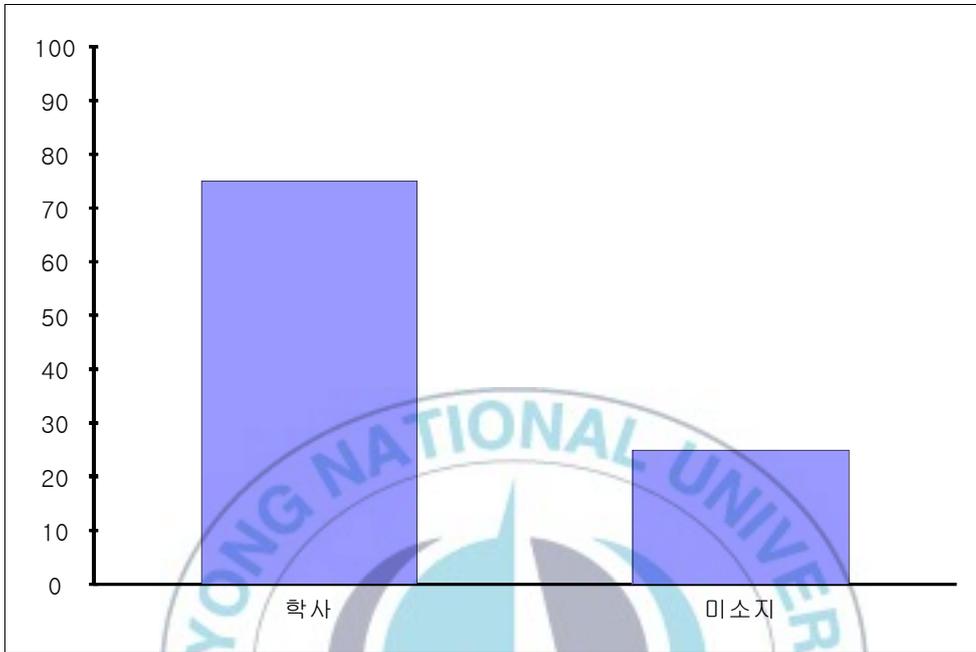
【그림2】 설문응답자 연령 분포



소지학위는 【그림3】 과 같이 학사가 36명이었고 현재 석사학위 중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1명이 있었다. 응답자의 75%가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국적은 미국(25명), 캐나다(17명), 영국(3명), 아일랜드(1명), 호주(1명), 남아프리카공화국(1명)으로 다양하였다. 그 중 미국, 캐나다 국적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42명으로 87.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림3】 설문응답자 소지 학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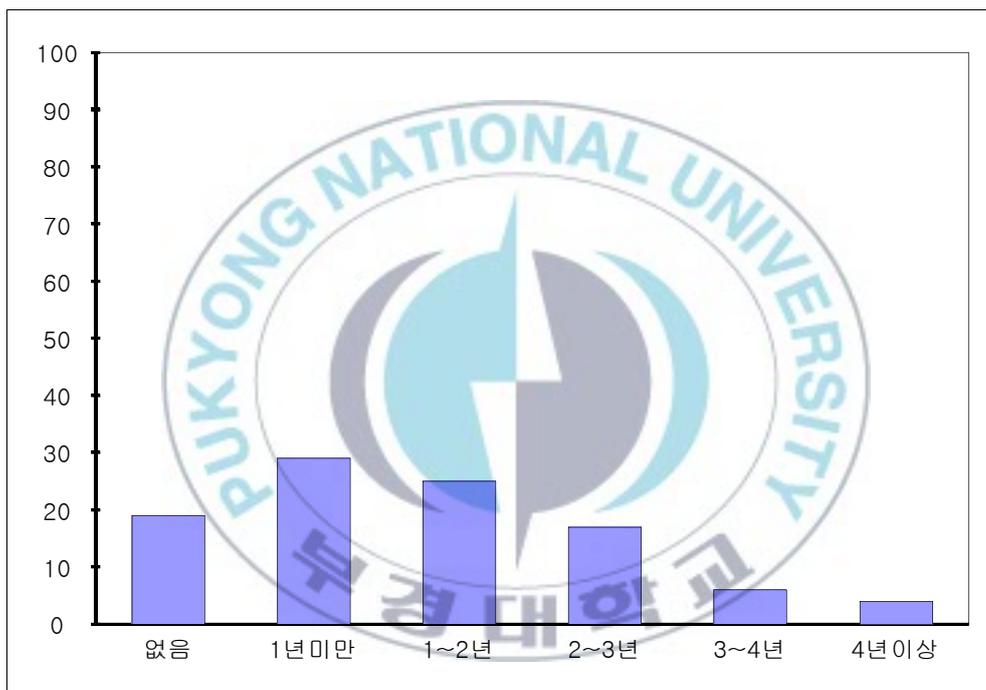


【그림4】 설문응답자 국적



한국에서의 지도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는 【그림5】와 같이 경험이 전혀 없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9명, 1년 미만 14명, 1~2년 12명, 2~3년 8명, 3~4년 3명이며 4년 이상도 2명이 응답하였다. 1년 미만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23명으로 응답자 전체의 약 4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5】 한국에서의 교육 경력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소지 자격은 【그림6】와 같이 TESOL 12명, TEFL 19명, CELTA 2명, Teaching Certificate 6명으로 전체의 75%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송지숙(2010)의 연구대상인 경기도 중등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자격소지자가 16%였던 점을 고려하면 울산 지역 공립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 소지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6】 설문응답자 소지 자격



한국어 실력을 묻는 질문에는 【그림7】 과 같이 전혀 못 하는 교사가 27명, 초급 수준이 18명, 중급 수준이 3명으로 초급 이하의 수준이 각각 56%, 38%으로 조사 대상의 94%가 한국어를 하지 못 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적응을 위해서는 원어민 협력교사가 부재할 경우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국어 교육은 필수일 것이다.

【그림7】 설문응답자 한국어실력



한국 문화와 관련된 지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는 0명이며 ‘조금 안다’ 12명, ‘보통이다’ 19명, ‘보통 이상이다’ 13명, ‘매우 많이 안다’ 4명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일수록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체류 기간이 짧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없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짧은 기간이라도 학교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직장인의 신분으로, 어떤 형태로든 한국인과 접하고 생활을 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는 자연 습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예상한 것 보다 ‘보통 이상이다’ 는 응답자가 2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8】 한국 문화 관련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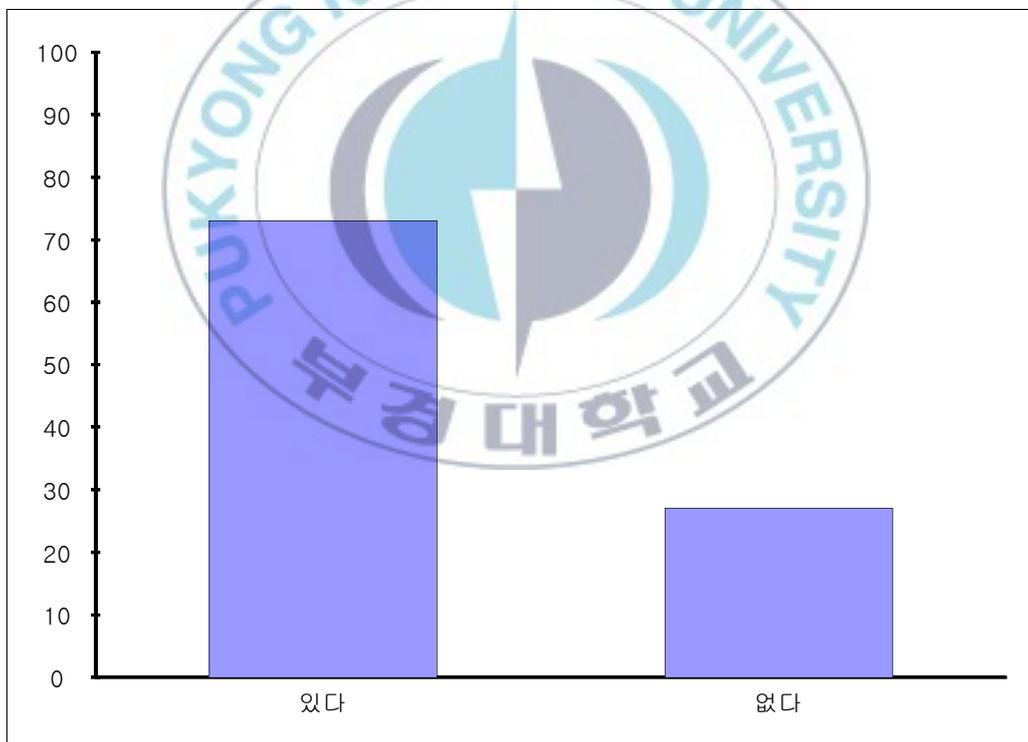


나. 조사 내용과 결과 분석

(1) 연수 경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근무전이나 근무 중에 한국어나 한국 문화교육 연수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그림9】와 같이 응답자의 35명인 7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9】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연수 경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근무전 EPIK 주관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속

기관인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울산광역시청에서 운영하는 울산글로벌센터의 한국어 프로그램,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이 정부 주도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일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도 있었다. 특이한 경우로는 본국에 있을 때 사실 한국어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운 미국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있었고, 독학(Self-Study), 서로의 언어 가르쳐주기(Language Exchange), 소규모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장소에서 연수를 경험한 경우이다. 정부 주도적인 연수가 아닌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고 자발적인 노력을 한 경우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연수에 참여한 경우 연수한 내용이 한국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문에 【표6】과 같이 응답하였다. 유용했다는 응답이 31%이고 유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1%로 한국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연수가 한국 학생 지도에 미치는 도움 정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6	17
대체로 그렇다	5	14
보통이다	13	37
대체로 그렇지 않다	6	17
전혀 그렇지 않다	5	14
합계	35	100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들 13명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표7】 과 같다.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제약이라고 응답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47%로 가장 많았다. 연수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대중 교통수단이 불편한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제약이 따를 것이며, 방과후 영어교실, 거점 영어교육센터 수업, 방학 중 영어캠프 수업 등 정규 수업 이외에도 수업이 많아서, 시간을 할애하여 연수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7】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빈도	백분율(%)
연수과정이 없어서	3	23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	15
시간적 여유, 공간적 제약	6	47
기타	2	15
합계	13	100

(2) 한국어 문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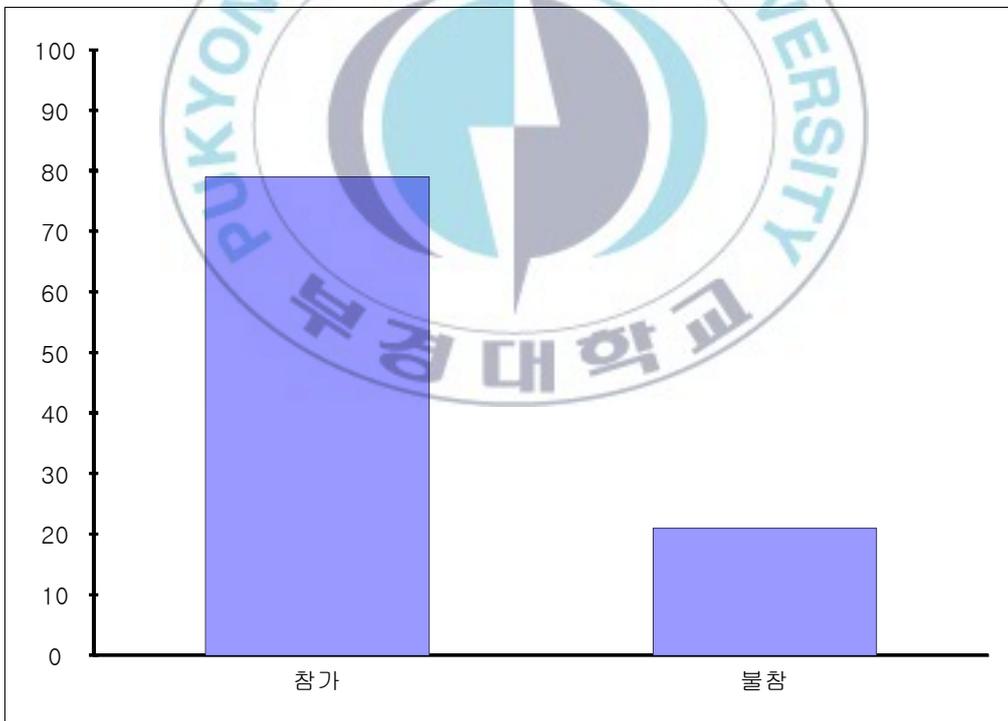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표8】 과 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명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대부분이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만약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38명(79%)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8】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빈도	백분율(%)
꼭 필요하다	7	14
매우 필요하다	10	21
필요하다	19	40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9	19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6
합계	48	100

【그림10】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가 여부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은 1명으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들은 한국인 교사와 협력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 시간에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9】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

	빈도	백분율(%)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3	8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27	71
한국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7	18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위하여	1	3
합계	38	100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이유는 【표10】 처럼 업무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미 충분히 경험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경우도 많았다. 기타 의견에는 이미 참여해 본 프로그램에 실망해서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10】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이유

	빈도	백분율(%)
연수과정이 없어서	1	10
배우기 싫어서	1	10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3	30
업무로 바빠서	4	40
기타	1	10
합계	10	100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한국어문화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항목들을 5단계로 선택하도록 하고 평균을 내어 순위를 정하였다.

【표11】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싶은 항목 순위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꼭 필요함
순위	항목			합계	평균
1	한국 사회의 예절			205	4.270
2	한국어			203	4.229
3	한국인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196	4.083
4	한국인의 사고 방식			194	4.041
5	언어생활			188	3.916
6	한국의 공공 시설과 제도			179	3.729
7	한국의 교통			177	3.687
8	한국의 자연, 지리, 관광지			159	3.312
9	한국의 전통 문화			156	3.250
10	숙박 시설물, 이용방법			154	3.208
11	한국인의 의식주			148	3.083
12	한국인의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			145	3.020
13	한국인의 경제 활동			133	2.770
14	한국의 계절과 날씨			107	2.229

【표11】을 살펴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한국 사회의 예절과 한국어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송지숙(2010)의 연구에서도 한국어와 한국의 가치관 및 신념이라는 항목이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항목으로 조사된 것과 결과가 같았다. 한국어는 어느 문화권의 사람이든 한국에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항목이지만 한국 사회의 예절은 유교적인 관습이 남아있는 한국 사회의 예절이 영어권 문화 출신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는 이질적이고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 문화 항목은 9위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를 더욱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역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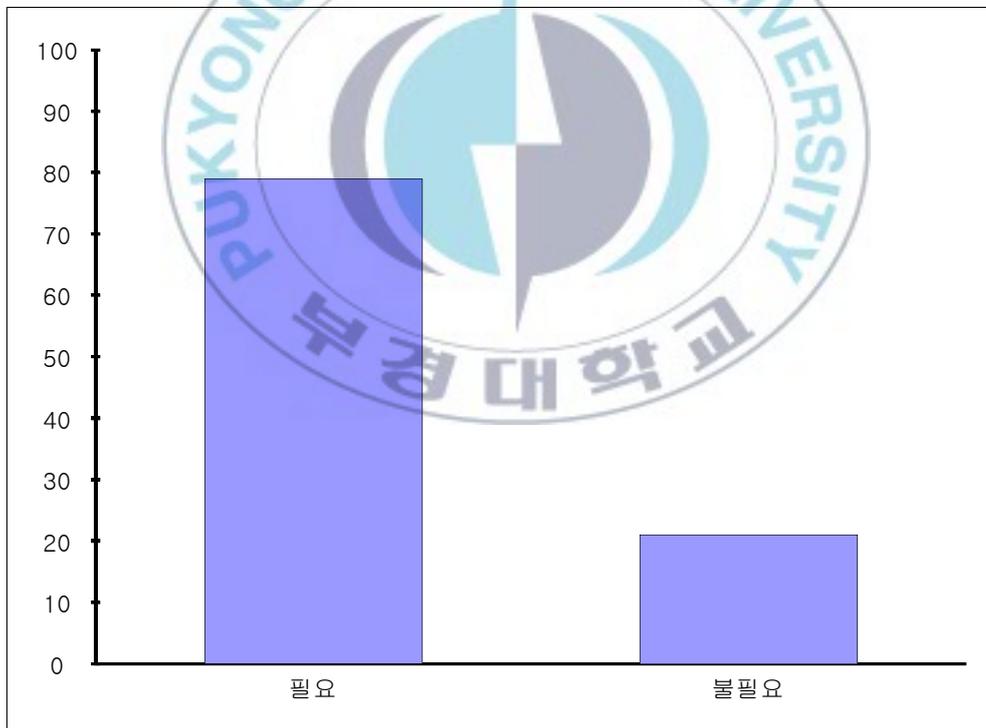
기존의 한국어 교재들이 서울 위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지방에 거주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는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문화 정보도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림11】과 같이 전체 응답자 48명 중 38명(79%)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배우고 싶은 지역 문화 교육 항목의 순위는 【표12】와 같다. 가장 배우고 싶은 지역 문화 교육 항목은 시내 주요 도로와 버스 노선이였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며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절심함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나 여행안내서가 서울 중심으로 제작되어

저 지방에 거주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지역의 특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 문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10명(21%)의 의견에는 울산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어 이미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필요 없다는 의견과 문화는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스스로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한국인 협력교사가 너무 친절해 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11】 지역 문화 교육 프로그램 필요 여부



【표12】 지역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싶은 항목 순위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꼭 필요함
순위	항목		합계	평균
1	울산의 시내 주요 도로와 버스 노선		154	4.052
2	울산의 관광지		133	3.500
2	울산의 지역 음식		133	3.500
4	울산의 백화점과 전통 시장		131	3.447
5	울산 인근의 도시		130	3.421
6	울산의 자연 경관		127	3.342
7	울산의 행정 구역과 주요 동 이름		124	3.263
8	울산의 인구 구성의 특징		112	2.947
9	울산의 공장		95	2.500

이상의 설문 조사를 통한 울산 지역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요구를 종합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일수록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한국어 초급학습자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요구 분석에서 체류 기간이 짧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체류 기간이 짧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대부분이 한국어 실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문화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화 항목을 우선으로 배

열하여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한국 사회의 예절과 한국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위한 지역화 된 문화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79%가 지역 문화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요구하는 문화 교육의 수준은 정보 제공 정도의 간단한 내용이지만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체류기간이 짧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스스로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한국어 문화 교육 시간에 함께 제공을 한다면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한국어 문화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울산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에서 제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참여 교육 활동들을 살펴보면 정규 수업시간이외에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 다양한 교육 활동에 투입되고 있어 장기간 연수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동을 해서 실시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집합연수이외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방법과 휴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V.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1.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에게 한국어 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달하려는 목표 선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문화 교육 목표를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승혜 외(2010: 61~63)는 외국인들에게 문화를 교육할 때 보다 의미있고 효과적인 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 교육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목적으로 논의되어 온 두 가지 목적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 세 가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언어는 문화적 배경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를 알아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 충격의 완화와 적응이다. 외국인 학습자는 모국어 문화와 목표어 문화 간에 나타나는 차이로 오해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화 교육은 이질 문화에 대한 충격 완화와 문화 수용 및 적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다. 국가를 초월한 세계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나 제도, 규범 등을 숙지케 하는 인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

한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첫째, 둘째 목적은 언어 교육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세 번째로 제시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목적은 문화 교육의 목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윤리나 제도, 규범 등을 숙지시키는 것보다는 서로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수용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박영순(2006)은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① 목표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의 매력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② 모문화와 목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③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과 언어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행동과 언어적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 ④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비교 대조할 수 있다.
- ⑤ 목표 언어를 구사할 때는 목표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박영순(2006)이 제시한 다섯 가지의 목표 중 둘째, 넷째를 서로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모문화와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 평가,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셋째, 다섯째 목표를 연관 지어 분석해보면, 행동, 언어표현, 문화적 관습, 가치관을 잘 이해하여 알맞은 행동, 언어적 대응, 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서로 연관 지어 보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순(2006)이 제시한 다섯

가지 목표 중 의문점이 남는 목표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 목표로 문화의 매력적인 특징을 이해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매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이상하게 사람의 눈이나 마음을 호리어 끄는 힘”³¹⁾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서 매력적인 특징을 찾자면 무엇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인이 느끼는 매력적인 특징을 외국인 학습자도 동의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목표를 제외한 네 가지의 목표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다음은 성기철(2001)의 논의이다.

성기철(2001)은 문화 교육의 목표를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상위 목표로 문화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하위 목표로는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문화의 다원성 이해: 다른 문화의 존재와 가치를 이해하게 함
- 일상적 생활 방식 이해: 대다수의 보편적 일상생활, 행동 및 활동 방식을 이해하게 함
- 보편적 사고 방식 이해: 대다수의 일상생활에 구현되는 생각의 방식을 이해하게 함
- 보편적 문화 지식 이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적 문화 지식을 이해하게 함
- 언어와 문화의 관계 이해: 언어와 문화가 상호 반영되는 현상을 이해하게 함
- 인위적, 자연적 산물 이해: 인간의 활동과 결과물, 그리고 자연적

31)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2005)에서 인용

산물을 이해하게 함

- 문화 이해와 실천의 태도: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해 보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를 갖게 함
- 일상생활의 적응력: 문화 이해를 통해 일상생활에의 적응력을 길러줌

성기철(2001)이 제시한 하위 목표를 살펴보면 단계를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의 단계를 거쳐 실천하려는 능동적 자세와 일상생활의 적응력을 기르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권성미(2010)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권성미(2010)는 목적(goal)과 목표(objectives)를 함께 제시하며, 한국어 문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goal)을 ‘문화 간 이해를 통해 새로운 세계의 사람들(즉, 한국인들)의 언어생활과 차이가 없는 언어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보고 한국어 문화 교육의 단계별 목표(objectives)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문화의 내용과 접촉하고 정보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문화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나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산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화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13】과 같다. 1, 2단계는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표현과 사회적 변인들이 언어 사용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언어생활과 관련된 문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 번째 목표는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협의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와 광의의 목표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표13】 권성미(2010)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

1단계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표현들을 이해한다. 즉, 문화적인 함의가 담긴 단어, 구 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단계	한국어 문화권에서 나이, 성, 사회 계층, 민족, 사는 곳 등과 같이 사회적 변인들이 언어 사용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한국어 화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3단계	한국어 문화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문화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국어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한국어 문화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다음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³²⁾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급(1, 2급)의 ‘사회 문화적 요구’의 수준을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울산 지역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체류 기간이 짧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일수록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의 한국어 수준은 전혀 모르거나 초급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한국어 실력을 초급수준으로 정하고 한국어 문화 교육의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등급이 표시된 연구의 경우에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 수준의 논의들만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급(1, 2급)의 ‘사회 문화적 요구’는 【표14】와 같다.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재외 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시험으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음

【표14】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의 목표³³⁾

등급	사회 문화적 요구
1급	이질적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 의지와 주변 한국인들의 최소한의 도움 아래 개인 영역에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공공 영역에서의 활동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2급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영역에서는 아직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아직 충분히 익히지는 못한 상태이다.

아울러 한선(2010)은 한국어 능력 시험의 등급별 평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선(2010)은 각급의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한 학습내용의 네 가지 측면(언어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중 문화 교육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간추려 문화 교육 평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선(2010)에 의하면 등급별 평가 목표는 각급의 학습 목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을 결정해주므로 평가 목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목표 설정에 고려할 만한 연구이다.

33) 강승혜 외 (2010: 219쪽)에 실린 표를 인용함

한선(2010)에 의해 정리된 한국어 능력 시험의 등급별 평가 목표 중 초급의 목표를 보면 【표15】와 같다.

【표15】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의 평가 목표³⁴⁾

	일반적인 평가 목표	문화 교육 평가 목표
1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 ·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생의 모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다.
2급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 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 할 문화적인 내용을 언어 학습의 주제와 연결해서 배울 수 있다.

34) 한선(2010: 15쪽)에 실린 표를 인용함

이상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부재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합의되어 범용화, 범세계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다.

한국어 교육 분야는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부재로 지역이나 기관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국립국어원에서는 범국가적 표준³⁵⁾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에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1단계’ 연구³⁶⁾를 시작으로 2011년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단계’ 연구³⁷⁾를 완료하였다.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등급별 총괄목표를 제시한 후 내용 기술범주³⁸⁾에 따른 등급별 목표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표준 교육과정³⁹⁾에서

35)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1단계』 연구에서는 ‘참조 기준’으로 정의 내리고, 교육과정 수립, 교수-학습 설계, 교수요목 설계 및 교재 개발, 평가 등 교육의 전반에서 기본 원칙,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함을 밝히고 있다.

36)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와의 연구용역 계약으로 2010.5.31~12.29에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어 교육 표준 등급을 7등급화하고, 각 등급의 목표 및 내용 기술범주를 화제(주제), 언어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언어기술(과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또한 표준 교육과정의 변이형으로 세종학당 모형, 결혼이민자 모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육 표준 등급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능력시험	표준 교육과정
고급(5-6급)	최고급(7급)
중급(3-4급)	고급(5-6급)
	중급(3-4급)
초급(1-2급)	초급(1-2급)

37) 2단계 연구는 2011.5.24 ~ 12.20에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구체적인 방안으로 등급 범주의 하위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배열하였다. ‘사용의 편리성’과 ‘적용의 융통성’을 중점 원리로 두고 표준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38) 화제(주제), 언어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언어기술(과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

39) 본 연구에서는 1, 2단계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을 이하 표준 교육과정으로 지칭한다.

제시하고 있는 1, 2등급의 총괄목표와 문화 영역의 1, 2등급 목표이다.

【표16】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목표(1-2급)

등급	총괄목표
1급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 일상적인 화제로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며, 요일, 시간, 장소 등의 기본적인 화제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구, 절 단위 혹은 짧은 문장 단위의 매우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쓸 수 있다. 자신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주변 사물과 장소 등과 관련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모의 음가,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 기본 문장의 억양을 원어된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급	슈퍼, 식당 등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자주 접하는 화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뿐만 아니라 친교, 문제 해결 등의 특정 상황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주제와 관련된 짧고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슈퍼, 식당, 은행, 우체국 등의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음운 변화를 이해하여 천천히 발화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괄목표 중 문화 교육과 관련이 깊은 부분은 총괄 목표의 끝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1급은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급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로 제시하고 있다.

초급에서는 일상생활, 개인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 영역에서도 총괄 목표의 내용을 반영한 목표를 기술하고 있는데, 【표17】를 보면 역시 일상생활, 개인 생활에 초점을 두고 위계가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추가된 형태이다.

【표17】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 기술(문화영역 1-2급)

등급	내용
1급	1.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나이가 많고 적음에 의한 기본적인 위계가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급	1.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영역의 하위 요소인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에 따른 등급별 목표도 기술하고 있다. 【표18】은 하위 요소에 따른 등급별 내용이다.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하위 요소의 목표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요구 중 전통적인 문화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화교육을 요구하는 것과 부합되는 부분이 하위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문화 관점에서 제시한 자국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이해는 교사라는 신분으로 한국 학생들을 대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목표일 것이다.

【표18】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영역 하위 요소 등급별 목표 기술(1-2급)

하위 요소	등급	내용
문화 지식	1급	1.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2급	1. 한국인의 행동 양식(인사법, 손짓, 몸짓 등)을 이해한다. 2. 한국인의 주생활(주거, 건축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3. 한국인의 식생활(음식, 음주, 식사 예절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4. 한국인의 교통 문화(교통, 운송, 길 찾기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5. 한국인의 경제 활동(화폐, 구매 등)을 이해한다. 6. 한국인의 예절(예법에 맞는 의례적 행동)을 이해한다. 7. 한국의 기후(날씨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8. 한국인의 의생활(한국인의 옷차림, 한복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문화 실행	1급	1. 한국인의 기본적인 예절(인사법, 식사 예절 등)을 경험한다.
	2급	1. 한국인의 여가 문화(여행, 취미생활 등)를 경험한다. 2. 한국인의 경제 활동(화폐, 구매 등)을 경험한다.
문화 관점	1급	1.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 문화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이해한다.
	2급	1. 한국인의 의생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자국 문화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이해한다. 2.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자국 문화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이해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과 연구 대상인 울산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위한 문화교육에 알맞은 한국어 문화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제시하는 목표들은 본 연구의 목적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수업의 효율을 높이며 나아가 귀국 후에는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는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항목을 선정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관

런지어 제시하였다. 【표19】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이다.

【표1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목표

1.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3. 직장생활에 필요한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영어수업의 효율을 높이고 직장에 빨리 적응하도록 한다.
4. 모국어 문화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들을 설정한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계약된 근무 기간이 끝나면 자국으로 떠나게 되는 단기 체류자들이다. 또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협력교사가 있어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질 동기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의욕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다. 자발적이지 않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포함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 지식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요구와 부합되는 부분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여 문화의 차이로 생기는 오해를 줄이는 것이다.

셋째, 직장생활에 필요한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영어수업의 효율을 높이고 직장에 빨리 적응하도록 한다.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초급의 목표는 일상생활과 개인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되고 있지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의 문화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조항록(2000)은 외국어 학습 동기가 특정 영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다면 언어적 능력의 발달 단계와는 무관하게 문화적 숙달도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⁴⁰⁾ 직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과 관련된 문화 정보를 일상생활 정보와는 별개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모국어 문화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 관점에서 제시한 목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Ryu Hoyeol(2003)은 원어민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생의 모문화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지식은 학생이 목표어 문화를 모르는 것보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더 방해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원어민 교사는 목표어 문화에 대해 정확한 지도나 공적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생이 목표어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 단절면에서 볼 때 덜 문제가 되는 반면,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 설명할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가 학생의 문화에 대해 가진 부족한 지식은 의사소통 단절로 이르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문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본 연구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0) 조항록(2000)은 한국인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하였다면 언어적 숙달도의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적 숙달도의 향상이라고 예를 들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경우 한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목표에 적절한 문화 교육 항목의 선정과 적절한 교육 방안의 모색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어 문화 항목의 선정 기준

일반적인 교육과정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을 논의한 이성호(2004: 372~377)는 내용의 유의미성,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유용성, 내용의 학습 가능성, 내용의 경제성, 내용의 내·외적 관련성, 내용의 균형성, 내용의 사회적 가치 적합성 등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강승혜 외(2010: 210~213)는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내용의 타당성이다. 한국 문화 교육에서 다룰 한국 문화 항목으로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에 적절한지,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내용의 유의미성이다. 한국 문화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용이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본질적이며 한국의 다른 분야, 다른 지식을 학습할 때 기초 요건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인지의 판단 기준은 한국 문화 교육의 목적 및 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셋째, 내용의 유용성이다. 학습자들에게 교실 밖 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다양화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학습자들의 거주국과 한국과의 교류와 상호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넷째, 학습 가능성이다. 교수자 측면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내용(teachability), 학습자 측면에서는 학습할 수 있는 내용(learnability)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배경 지식, 학력, 이해 능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고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는 의미가 없다.

다섯째, 학습자 요구이다. 학습자의 요구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의 한국 문화 교수-학습의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는 전통 문화 관련 내용은 학습자들의 관심과 요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교육과정 내용 선정의 기준으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문화 항목을 선정하는데도 유의미한 기준으로 논의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화 항목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연구들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는 문화 범주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고 둘째는 문화 항목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 항목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 문화 범주

‘문화’라는 정의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먼저 문화 교육에서 다루어질 문화의 범주를 정하는 작업부터 진행되어야겠다.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와 방향⁴¹⁾에서 밝힌바와 같이 문화의 범주가 광범위하므로 한국어 학습상황에서 연구한 문화 범주들을 참고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필요한 문화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방향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상황에서 논의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항록(2010)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론

41) 본문 25~26쪽 참고

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표20】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론 개요⁴²⁾

조현용(2003)	조항록(2004)	민현식(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과 한국문화 · 비언어적 의사소통 · 언어 예절 · 한국인의 사고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문화 · 비언어적 의사소통 · 분야 별 문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문화 - 역사 문화 - 민속 문화 - 사상 문화 - 관념과 가치관 - 일상생활 문화 - 제도 문화 - 예술 문화 - 문학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교육의 정신 문화사적 측면 · 한국 개관 · 한국 생활 문화 · 한국의 의식주 문화 · 한국의 매체 문화 (영화, 드라마, 언론, 통신) · 한국의 창조: 예술과 과학, 발명품 · 한국의 문학 · 한국의 역사 · 한국인의 사고방식 · 한국의 인물 · 한국의 언어문화

각각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조현용(2003)은 한글과 한국문화, 비언어적 의사소통, 언어 예절, 한국인의 사고와 표현으로 범주를 정하고 있다.

조항록(2004)은 언어문화, 비언어적 의사소통, 분야 별 문화 요소로 범주를 정하고 분야별 문화 요소의 10가지 하위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민현식(2004)은 한국문화교육의 정신문화사적 측면, 한국개관, 한국의 생활 문화, 한국의 의식주 문화, 한국의 매체 문화(영화, 드라마, 언론, 통신), 한국의 창조(예술과 과학, 발명품), 한국의 문학, 한국의 역사, 한국인의 사고 방식, 한국의 인물, 한국의 언어문화로 나누고 있다.

각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주들 중에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42) 조항록(2010: 362)에 실린 표 인용

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표준 교육과정으로 제시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 단계’ 연구에서는 제시하는 문화 범주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은 문화 전문가들⁴³⁾의 의견을 반영한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이다.

【표21】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의생활	현대 의생활,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짚신), 유행 등
		주생활	현대의 주거 형태(아파트, 기숙사, 원룸 등), 전월세, 하숙/자취 등
		식생활	대표적 음식: 김치, 특별한 날 먹는 음식: 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등, 계절음식: 삼계탕, 팔빙수, 냉면, 팔죽, 상차림, 식기(숟가락, 젓가락), 식사예절, 음주예절 등
		계절활동	벚꽃놀이, 단풍놀이 등
		경제활동	소비문화(쇼핑), 재래시장, 흥정과 덤, 재테크, 근검 & 절약(자린고비), 기부 등
	여가 생활	여행	숙박 종류와 시설, 유명한 여행지, 여행의 종류(수학여행, 신혼여행 등) 등
		친목모임/동호회	인터넷 동호회, 찜질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조기축구회, 등산 모임 등
		스포츠	등산, 야구, 축구, 응원(붉은 악마)
	공동체	가정생활	가족형태(맞벌이, 1인 가족 등), 출산, 육아, 경

43) 전문가 의견 수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간: 2011년 11월 5일 ~ 11월 22일, 전문가: 박영순(전 고려대), 조항록(상명대), 황인교(연세대), 이선이(경희대), 조현용(경희대), 내용: 등급화에서 대분류 문화 항목 선정의 적절성,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 문화 항목 선정의 적절성, 분류 항목에 따른 등급화의 적절성, 선정 항목 중 삭제되거나 변형(수정) 되어야 할 항목, 기타 의견

	생활		조사(돌, 환갑 등), 공공기관 이용(세금 납부 등), 식사예절 등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 아르바이트, 축제, 동아리 등
		직장생활	위계질서, 회식문화(뒤풀이, 음주 등), 야유회, 직장 내 예절(약속하기, 직책 부르기 등)
	언어 생활	이름과 호칭	친족 호칭, 호칭 확대, 사회적 호칭(oo 씨, 선배 호칭), 별명,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 등
		인사	인사말(인사예절 포함), 반말 표현(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등
		한글과 한국어	한글 창제와 원리, 한국어의 특징(속담, 색채어 등)
		몸짓 언어	비언어적 행위(가슴을 치다 등) 등

【표22】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국 사회	세시 풍속	명절	설, 추석
		주요절기	한식, 단오, 삼복, 대보름, 칠석 등
	관혼상제	관례/혼례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결혼식, 결혼준비, 축의금 등), 결혼정보회사 등
		장례/제례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등
	정치	남북관계	38선, 비무장지대(DMZ), 햇볕정책, 통일, 남북 교류(남북회담,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등) 등
		국제관계	원조 주는 나라, 친일/반일 감정, 친미/반미 감정 등
		정치제도	선거, 투표 등
	경제	경제제도	화폐단위, 은행(ATM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
		경제정책	한국 경제의 성장, 물가안정정책, 고용정책, IMF, 자유무역협정(FTA) 등
	교육	교육열	조기 교육 및 유학, 사교육 열풍, 대안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제도	초·중등, 대학(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문제	교권 추락, 체벌 금지 등
	사회	복지정책	주 5일,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제도	쓰레기 종량제, 자동차 요일제, 신분증명제도, 출산장려정책 등

		공휴일	국경일(한글날,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등), 기념일(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성년의 날 등)
		사회문제	고령화, 저출산, 이혼율, 청년 실업, 자살, 인터넷 중독, 빈부격차, 도농 격차, 지역차, 지역감정, 환경문제 등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기후, 계절, 날씨 등
		대표지역과 축제	부산, 강릉 단오제, 경주 신라문화제, 남원 춘향제, 여주 도자기 축제, 보령 머드 축제, 태백산해돋이 축제 등
	교통	교통수단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배, 비행기 등)
		교통체제	버스전용차선, 지하철노선, 버스 종류, 환승, 교통카드, 교통예절 등
	통신	과학기술의 발달	IT강국, 통신예절, 통신언어(문자 보내기, 이모티콘 사용하기), 인터넷에서의 연락망(소셜네트워크) 등
다문화 사회	다문화 현상	다문화, 국제결혼, 이주근로자 등	

【표23】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 음악	아리랑, 판소리, 민요, K-POP, 전래동요 등
		전통/현대 미술	김홍도, 신윤복 등의 그림,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등
		전통/현대 공연	마당놀이, 탈춤, 부채춤, B-boy, 난타 등
	문학	문학작품	고대, 근-현대 소설, 수필, 시, 전래동화, 건국 신화, 설화, 전설, 민담 등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가족주의	‘우리’의 사용, 정(情), 한(恨), 신명 등
		건강	웰빙, 민간요법, 보약, 한의원, 침, 목욕(대중탕) 등
		성역할	남존여비의 변화(직업의 변화) 등
		가치관의	미(美)의 기준 변화, 세대 차이 등

	사고 방식	변화	
		빨리빨리 행동	퀵서비스, 음식배달, 경제발전의 원동력 등
		민간신앙 종교	점, 미신, 금기 등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고대, 근대, 현대 등
	역사적 인물	유명인물	화폐 인물, 대통령, 스포츠 스타, 한류 스타, 역 사적 위인 등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전통놀이(윷놀이, 널뛰기, 그네타기, 공기놀이, 닭싸움, 제기차기 등), 전통무예(태권도, 씨름 등), 유적지(경복궁, 숭례문 등), 한옥(기와, 초 가, 온돌 등)
		무형 문화재	한복, 강강술래, 전통혼례, 농악 등
		세계문화 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 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상징물	한국의 상징	국가(애국가), 국기(태극기), 도자기, 인삼, 무궁 화 등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 생활	공공기관 이용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단계’ 연구에서는 문화 영역을 총 7개의 대분류 항목, 23개의 중분류 항목, 55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세부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분류인 ‘한국인의 생활’, ‘한국 사회’,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유산’, ‘외국인의 한국생활’ 중 ‘외국인의 한국생활’은 앞의 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범주이다.

또한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범주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모두 필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사선택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문화 범주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나. 문화 항목 내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문화 항목들을 선정하기에 앞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 문화 항목들을 선정하여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조항록 외(2001)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문화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교재 분석이라고 보고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시한 자료는 5개 기관에서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24】 초급 단계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문화 항목44)

교재	문화 항목의 내용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한국인의 이름, 숫자 4, 한국의 옛날 집, 가족의 호칭, 주부들의 주말, 한글과 세종대왕, 가마, 돌과 회갑, 태권도, 식사예절,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백의민족, 옛날의 일기예보, 바람맞다, 한국인의 여가 활동
선문대학교 『한국어 초급 1』 『한국어 초급 2』	태극기/애국가/아리랑,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기후, 한국의 사람과 수, 백일/돌/환갑, 한국음식, 생활속의 미신, 한국의 화폐, 호칭, 가족관계, 십장생, 태권도, 예의바른 한국생활, 한국의 결혼, 한국지도와 관광지, 한복, 근무시간, 재미있는 의성어
한국어교육연구센터 (KLEAR)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인사법, 한국인의 이름, 사회위계와 호칭, 명함 교환, 친구/친지소개, 사회위계와 종결형, ‘우리’ 개념과 사용, 가족호칭의 확대 사용(친구/친지 등), 태극기, 다양한 인사말(어디 가세요?), 존대 표현과 반말(인사말), 주거지 명칭과 표현 방법, 주택의 종류, 날짜(연월일)쓰기, 달력(양력과 음력), 돌과 환갑, 서울,

	서울의 지하철 체계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1』 『서강한국어 2』	한국인의 이름, 한복, 호칭, 한국 소개, 한국의 주요 전화번호, 한국인의 사적 질문(나이 묻기 등), 한국의 지하철, 신촌과 서강대, 서울시 역사 문화 관광, 버스전용차로, 휴일과 고속도로, 한국의 시장, 소주를 즐기는 나라, 돈 지불 풍습, 한국식 잔치, 김치, 집에 들어가기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 1』 『한국어 초급 2』	인사예절, 식사예절, 한국의 상차림, 한국의 공휴일, 한국의 주요 전화번호, 한국의 명절, 한국인의 몸짓 언어, 한국의 전통적 미인, 서울의 박물관, 사물놀이, 돌잔치, 지하철 노선표, 한국의 가족
	총 81개 항목

5개 기관 교재 중에서 2~3개 기관이 동시에 설정하여 나오는 빈도가 높은 한국인의 이름, 호칭, 가족, 식사예절, 돌과 회갑, 태권도, 서울의 지하철, 주요 전화번호 등은 본 연구에서 문화 항목을 선정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화 교육 항목을 살펴보려고 한다.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영역의 하위 요소인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을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1급, 2급 세부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5】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교육 항목(1급)

유 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행 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생활	인사	· 고개 숙이고 인사하기 · 악수하기

44) 조항록(2010: 239)에 실린 표 인용

			이름과 호칭	· 빈말표현(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 친족호칭(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누나, 언니, 형, 오빠, 남동생, 여동생)
				· 사회적 호칭(oo씨, 선후배 호칭)
				· 상차림(음식을 놓는 위치)
한국사회	일상생활	식생활	교통수단	· 상차림(음식을 놓는 위치)
정 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식생활	· 한국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밥, 김치, 찌개류, 국류 등)
				· 식기의 종류(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
				·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용도 및 사용법(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 젓가락은 반찬을 먹을 때 사용)
	한국사회	언어생활	한글과 한국어 이름과 호칭	· 한글 창제 원리
				·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성과 이름)
				· 화폐의 종류-지폐(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원, 수표), 동전(오백 원, 백 원, 오십 원, 십 원)
한국사회	경제	경제제도	· 화폐의 종류-지폐(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원, 수표), 동전(오백 원, 백 원, 오십 원, 십 원)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 사계절과 날씨	

【표26】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교육 항목(2급)

유 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 취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문화재	· 유적지(승례문,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무형문화재	· 한복, 강강술래
			세계문화유산	·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행	한국인의	언어생활	이름과	· 한국의 흔한 성씨, 별명

동	생활		호칭	· 호칭의 확대현상(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호칭을 사용하는 것: 언니, 오빠, 이모 등)	
			한글과 한국어	· 언어예절(존댓말과 반말)	
			몸짓 언어	· 비언어적 행위(사람을 부를 때의 손동작, 답답할 때 가슴을 치는 동작)	
		일상생활	식생활	· 특별한 날 먹는 음식(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결혼-잔치국수) · 식사예절(어른 먼저 수저 들기, 먼저 자리 뜨지 않기,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먹기) · 음주예절(고개 돌리고 마시기, 술 권하기, 술 따르기)	
			계절활동	·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교통수단	· 교통수단 이용하기(버스 타는 곳, 버스 이용 시 요금 지불 방법과 할인)	
	한국사회	교통	교통체계	· 교통예절(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앉은 사람이 서있는 사람의 가방 받아주기)	
			지리	한국의 지리와 지형 · 계절에 따른 날씨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의생활
	주생활	· 계절음식(삼계탕, 팔방수, 냉면, 팔죽)			
식생활	·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야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경제활동	· 공공기관이용(은행, 우체국, 동사무소 등) · 경조사(돌, 환갑 등)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 6-3-3-4 학제, 학기 시작 시기, 정규 교육과정의 진학 나이, 의무교육제도			
한국사회	교육	교육제도			

		교통	교통체계	· 버스 종류, 버스 전용차선, 지하철 노선 · 환승, 교통카드
		관혼상제	관례/혼례	·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결혼식, 결혼준비, 축의금 등), 결혼정보회사 등
			장례/제례	·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등
	세시풍속	명절	· 설(세뱃돈, 설빔, 차례, 성묘, 떡국, 만두) · 추석(달맞이, 차례, 성묘, 송편)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생활	공공기관 이용	·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7개의 대분류 중 초급(1, 2급) 과정에서는 ‘한국인의 생활’, ‘한국사회’, ‘한국의 문화유산’, ‘외국인의 한국생활’ 인 4가지의 범주 안에서 문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중분류 항목 23개 중에서는 11개(언어생활, 일상생활, 교통, 경제, 지리, 문화재, 교육,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 관혼상제, 세시풍속), 55개의 소분류 항목 중 22개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설계 및 교재개발 시 독립된 문화학습 제시 형태와 단원 내에서 주제와 통합된 제시형태, ‘알아두기’ 형식의 분리된 제시 형태 등의 다양한 제시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를 교육할 경우 특수한 교육 환경과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문화 항목을 심화시켜 제시할 수 있음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 교육 항목들을 바탕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요구와 교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목적에 알맞은 문화 항목을 추가하여 재구성하려고 한다.

3. 한국어 문화 항목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중분류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문화 항목 선정의 문화 범주로, 표준 교육과정의 예시를 문화 항목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는 대상에 맞추므로 제시되는 문화 교육의 항목이므로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것을 재구성하는 변이형의 교육과정으로서 표준 교육과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초급(1, 2급)의 중분류 항목 11개(언어생활, 일상생활, 교통, 경제, 지리, 문화재, 교육,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 관혼상제, 세시풍속) 중 ‘교통’, ‘경제’, ‘지리’, ‘관혼상제’, ‘세시 풍속’은 묶어서 대분류의 기준인 한국사회로 범주를 따르려고 한다. 또한 표준 교육과정 공동체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제시하는 예시를 보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남은 중분류 항목인 ‘언어생활’, ‘일상생활’, ‘한국사회’, ‘교육’, ‘문화재’인 5개의 범주로 축소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교육’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내용을 심화할 필요가 있는 범주이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이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직장문화도 함께 포함하는 ‘직업생활’이라는 범주를 추가하려고 한다. 대신 ‘교육’은 ‘직업생활’ 범주에 포함시켜 내용을 구성하고 문화 범주에서는 제외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문화재’ 범주에는 ‘한국의 상징’을 추가하여 대분류 항목인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한국의 역사’ 범주도 추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화 교육의 범주는 ‘언어생활’, ‘

일상생활’, ‘직업생활’, ‘한국사회’,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 로 6개의 범주로 축소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6개의 범주에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예시 내용을 넣어 문화 항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2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항목45)

문화범주	영역	문화 항목
언어생활	한글과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창제 원리 · 언어예절(존댓말과 반말) · 교실 한국어
	이름과 호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호칭(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누나, 언니, 형, 오빠, 남동생, 여동생) · 사회적 호칭(oo씨, 선후배 호칭) ·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성과 이름) · 한국의 흔한 성씨, 별명 · 호칭의 확대현상(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호칭을 사용하는 것: 언니, 오빠, 이모 등)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개 숙이고 인사하기 · 악수하기 · 빈말표현(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몸짓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언어적 행위(사람을 부를 때의 손동작, 답답할 때 가슴을 치는 동작)
일상생활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차림(음식을 놓는 위치) · 한국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밥, 김치, 찌개류, 국류 등) · 식기의 종류(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 ·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용도 및 사용법(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 젓가락은 반찬을 먹을 때 사용) · 특별한 날 먹는 음식(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결혼-잔치국수) · 식사에절(어른 먼저 수저 들기, 먼저 자리 뜨지 않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먹기) · 음주예절(고개 돌리고 마시기, 술 권하기, 술 따르기) · 계절음식(삼계탕, 팔빙수, 냉면, 팔죽)
	의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짚신)
	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주거형태(한옥,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기숙사 등) · 전월세, 하숙/자취 · 온돌생활, 좌식생활
	계절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직업생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3-4학제, 학기 시작 시기, 정규 교육과정의 진학 나이, 의무교육제도 · 한국의 영어교육(조기 교육 및 유학) · 교육열(사교육 열풍)과 입시(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에서의 호칭(위계질서)
	직장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관련 용어 · 출퇴근 시간 · 회식문화(뒤풀이, 음주 등) · 동호인 활동
한국사회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 교통수단 이용하기(버스 타는 곳, 버스 이용 시 요금 지불 방법과 할인) · 교통예절(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앉은 사람이 서있는 사람의 가방 받아주기) · 버스 종류, 버스 전용차선, 지하철 노선 · 환승, 교통카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의 종류-지폐(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 수표), 동전(오백 원, 백 원, 오십 원, 십 원) ·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야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계절과 날씨 · 계절에 따른 날씨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용(은행, 우체국, 동사무소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일(한글날,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등) • 기념일(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성년의 날 등)
	관혼상제	•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결혼식, 결혼준비, 축의금 등), 결혼정보회사 등 •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등
	세시풍속	• 설(세뱃돈, 설빔, 차례, 성묘, 떡국, 만두) • 추석(달맞이, 차례, 성묘, 송편)
한국의 문화유산	유형 문화재	• 유적지(송례문,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무형 문화재	• 한복, 강강술래
	세계 문화유산	•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 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한국의 상징	• 국가(애국가), 국기(태극기), 김치, 인삼, 무궁화 등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 고대, 근대, 현대 등
	유명인물	• 화폐 인물, 대통령, 스포츠 스타, 한류 스타, 역사적 위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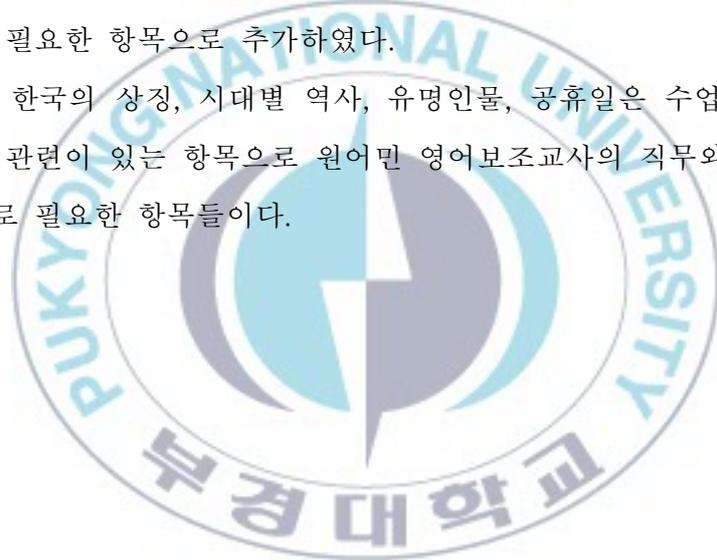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표준 교육과정 초급(1,2급)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 내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항목들은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초급보다 상급의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항목이지만 원어인 영어보조교사가 교사라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은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교육과 분리된 문화 교육 항목도 포함하므로 가능한 일이다.

추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언어생활’에서는 교실 한국어를 추가하였

45) 표 속에서 진한 글씨로 표기된 내용은 표준 교육과정(1,2급)에서 제시하지 않는 내용을 나타낸다.

다. 교실 한국어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간단한 표현들을 암기로 익히면 수업 진행과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직업생활’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항목들을 추가하였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로서 영어권의 문화와는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한국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아울러, 직장문화와 관련된 위계질서, 회식문화, 동호인 활동, 학교 관련 용어들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직장 내의 동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이 밖에 한국의 상징, 시대별 역사, 유명인물, 공휴일은 수업 내용과 수업 일정과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배경 지식으로 필요한 항목들이다.



4.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대부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한국 생활을 돕고 있다. 또한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수업 진행이나 수업 설계에 있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학교에서도 권장하는 분위기이므로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조항록(2010)은 국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 교육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교육할 때 문화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둘째는 신문 자료, TV 뉴스 및 드라마, 광고 전단지 활용과 같은 실용적인 실제 자료의 학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학습하는 경우이다. 셋째, 한국 역사, 문학, 사회, 현대 정치와 같은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특정 시간을 설정하여 한국어로 강의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넷째, 현장 학습을 통한 한국문화 교육이다. 다섯째, 수업 후 과제, 주말 과제의 형식으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조항록(2010)에서 다섯 번째로 제시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법 중 하나인 문화체험과 관련하여 이은숙(2010)은 학습자들의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는 언어 교육과의 통합이나 분리의 관점을 벗어나는 상위의 개념으로 지역학⁴⁶⁾에 대한 요구와 신명풀이⁴⁷⁾를 문화체험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

46) 43) 이은숙(2010)은 지역학은 체험 대상 선정 기준시 주변 지역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되는 지역의 공간적 이해를 의미하며 신명풀이는 신구문화를 동시에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학적 관점과 신명풀이의 체험이 고루 반영되어 학습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 문화체험의 예로 부여 지방 유적 답사와 보령머드 축제 연계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교실 안에서의 수업보다 문화체험 자체가 목적이 되는 한국 문화 교육을 강화해야하며,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서 문화체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역학적 이해와 신명풀이 체험이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항록(2010)은 각 교육 기관에서 주제, 과제/기능, 한국어의 구조와 형태 등을 교수할 때 문화 학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지금까지의 교재에 나타난 문화 설명은 사진 또는 그림을 제시하나 대부분 단순 설명식에 국한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수동적 이해 활동에서 능동적인 문화학습자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문화항목을 선정, 기술하는 단편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화학습 전단계-문화학습 단계-문화학습 후 단계로 나누어 과정 중심의 문화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과정 중심의 접근은 학습 단계를 전단계-단계-후단계로 나누고 전단계에서는 학습목표의 제시, 동기의 강화, 브레인스토밍, 스키마 형성, 본 단계에서는 다양한 학습 전략 구사, 후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의 확인 및 강화, 심화학습으로의 유도, 다른 학습과의 연계내지 통합, 자기 학습 평가 등을 주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 학습에서의 인지적 과정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현용(2003)은 교수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인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각 변인에 따른 교수 상황과 수업 설계의 문제를 다루는 논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실의 특성이나 학습자, 교수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의 설계와 교수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 상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 상황을 먼저 고려한 후 과정 중심의 접근을 좀 더 구체화하여 세부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 출발점은 학습자 변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가. 교수 상황

(1) 학습자 변인

교육 방안을 논의할 때 학습자의 상황이 어떠한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학습장의 상황에 따라 학습 내용, 학습 시간, 학습 방법, 학습 목표 등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은정(2008)⁴⁸은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문화 교육의 학습자 변인을 정리했으며 김수진(2010)⁴⁹은 좀 더 세분화된 학습자 변인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학습자 변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8) 문화 교육의 학습자 변인

연령에 따라	아동(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생 이상 성인
거주 지역에 따라	한국거주: 이주민, 외국인, 한국인(내국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한국인
목적에 따라	학문목적, 생활적응, 개인적 취향, 다문화 사회 시민의식 함양

49) 한국 문화 교육의 학습자 변인1 -국내거주학습자-

잠재적 학습자	학습자 특성	우선시 되는 학업 목적
이주정착 1세대	결혼 목적 이주정착	결혼 생활과 한국 정착
	직업 목적 이주정착	직장 생활과 한국 정착
이주정착 2세대	한국문화에서 출생, 성장	정체성 확립
체류자	직업 목적 체류	직장 생활과 한국 생활
	학업(어학연수, 유학) 목적 체류	학교 생활과 한국 생활
	동반자 자격(배우자, 자녀)	한국 생활

【표28】 본 연구의 학습자 변인

학습자 특성	직업 목적 체류
연령	대학생 이상 성인
근무처	학교
목적	직장 생활과 한국 생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학습자의 업무의 종류, 학교라는 동일한 근무처, 영어권이라는 동일한 문화권은 가진 동질성이 강한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수업 언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실제 교수-학습 과정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문화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수업 언어에 대해 고려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문화 항목은 반드시 한국어 학습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물론이고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도 언어 교육과는 별개로 교육할 수 있는 한국어 문화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내용을 한국어로 학습시킬 필요는 없다. 물론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문화 항목에서는 한국어로도 수업이 진행되어야겠지만 수업 언어로는 한국어와 영어의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교사가 학습자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교실보다 학습자에게 의사전달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연구⁵⁰⁾도 발표되고 있으

50) 조운경(2008)은 모어 사용 교실(MC)와 목표어 사용 교실(TC)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며, 단기간 체류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문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모어인 영어가 필수라고 하겠다. 또한 이미 많은 한국 문화 정보들⁵¹⁾이 영어로 제작되어 있어 실제 수업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나. 교수-학습 방안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안 중 문화체험⁵²⁾을 통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이은숙(2010)은 문화체험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놀이도 함께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제시하고 있다.⁵³⁾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표준 교육과정에서 문화영역의 하위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을 종합하여 달성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문화지식은 조항록(2010)에 의하면 과정중심학습의 학습 전 단계에 실시할 수 있는 활동으로, 문화실행은 학습단계, 문화관점은 학습 후

5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는 한국의 문화상징(한복, 한글, 김치, 불고기, 불국사, 석굴암,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세계적 예술인)을 한국어 이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소개하고 있다.

52)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장소의 방문, 체험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교실을 벗어나는 특정한 장소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서의 실습, 체험을 모두 일컫는 의미로 사용한다.

53) 이은숙(2010)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실시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서울 선유도공원과 <난타>공연, 경주 지역 문화체험, 제주도 체험, 수원 화성행궁과 축구관람, KBS<열린음악회>와 봉은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선정된 문화 항목들은 서로 연관지어 학습할 경우 학습자에게 만족도를 높여주고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을 포함시켜 제시할 수 있는 항목들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교수-학습 방안은 세계문화유산과 벚꽃놀이를 묶어서 학습 주제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한국문화유산 범주에 있는 항목이고 벚꽃놀이는 일상생활 범주에 있는 항목으로 두 항목을 연관지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중 경주 석굴암, 불국사,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경주에 있는 유산으로, 경주는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벚나무가 많아 봄철에 벚꽃놀이를 하기에도 적당한 곳이다. 그러므로 세계문화유산 방문 시기를 봄으로 잡는다면 두 가지 문화체험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 상황에 있지 않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도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학습 대상으로 고려하므로, 별도의 한국어 문화 교육 수업이 아니라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봄철 현장학습의 장소나 교원들의 장외 연수 장소로 경주를 선정한다면 한국어 문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각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협력교사들이 문화 항목을 숙지하고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목이다.

학습 전 단계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스스로 문화 지식을 쌓는 단계로 영문으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서 사이트 소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학습 단계는 직접 문화를 체험하는 단계이다. 경주에 직접 가서 학습 전 단계에서 조사한 곳을 방문하고 그 곳의 자연을 통한 계절 놀이도 체험하는 것이다.

학습 후 단계는 문화체험이 끝난 후 실행하는 단계로 원어민 영어보조교

사가 모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이다.

【표29】 교수-학습 방안 1

학 습 주 제	세계문화유산과 벚꽃놀이		수 업 시 기	봄(4월)
학 습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파악한다. ● 경주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한다. ● 계절 활동인 벚꽃놀이를 체험한다. 			
학 습 단 계	문화 요소	교수-학습과정		
학 습 전 단 계	문 화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조사하기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소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10가지 발표하기 -가장 인상적인 세계문화유산 발표하기 		
학 습 단 계	문 화 실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화유산 방문하기 -경주 불국사 -경주 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 계절활동 체험하기 -벚꽃을 본 느낌 말하기 -벚꽃놀이 체험하기 -기념 촬영하기 		
학 습 후 단 계	문 화 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의 세계문화유산 소개하기 ▶ 모국의 계절 활동과 비교하기 		

두 번째, 교수-학습 방안은 크리스마스 와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는 익숙한 날이지만 한국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한국만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와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을 통합한 학습 주제를 선정하였다. 크리스마스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화 항목 중 한국사회 범주 중 공휴일 영역에 있고,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은 일상생활 범주 중 식생활 영역에 있는 항목이다.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므로 한국에서 생일에 먹는 특별한 음식인 미역국을 만드는 체험과 연관 지어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습 전 단계에서는 기독교 문화권과 다른 한국인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에 대한 생각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직원들을 통해 조사하거나 대화해 보는 활동이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 보는 거리 풍경, TV를 통한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학습 단계는 직접 한국인들이 생일에 먹는 특별한 음식인 미역국을 만들어 보는 문화체험이다.

학습 후 단계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모국에서 먹는 크리스마스 음식 소개와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국인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는 심화학습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표30】 교수-학습 방안 2

학 습 주 제	크리스마스 와 특별한 날 먹는 음식	수 업 시 기	겨울(12월)
학 습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파악한다. ● 한국인들이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을 만들어 본다. ● 모국의 크리스마스 음식을 소개한다. 		
학 습 단 계	문 화 요 소	교수-학습과정	
학 습 전 단 계	문 화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크리스마스 풍경 파악하기 -12월의 거리 풍경 말하기 -한국인들이 느끼는 크리스마스 느낌 조사하기 · 학교 직원들(협력교사)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학 습 단 계	문 화 실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들이 특별한 날 먹는 음식 -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결혼(잔치국수) ▶ 미역국 만들기 -학교 급식에서 먹어 본 경험 말하기 -조리법 확인하기 -모듬별(3~4명)로 조리하기 -시식하고 느낀 점 말하기 	
학 습 후 단 계	문 화 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의 크리스마스 음식 소개하기 ▶ 한국 음식 중 조리법이 궁금한 음식 질문하기 	

세 번째 교수-방안의 주제는 화폐의 종류와 쇼핑이다. 화폐의 종류와 쇼핑은 모두 한국사회범주 중 경제영역에 속해 있는 문화항목들이다. 화폐의 종류에서는 지폐와 동전을 모두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활동을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연관 지어 교수-방안을 구성하였다.

학습 전 단계에서는 한국의 화폐 종류를 모두 학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화폐의 종류를 익히고 구분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게임을 활용하는 것도 학습자가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물건을 구매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한국어 표현도 익혀 보도록 한다.

학습 단계에서는 물건 구매 계획을 세우고, 학습 전 단계에서 익힌 한국어 표현을 바탕으로 직접 인근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단계이다. 인근에 재래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학습 후 단계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의 화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쇼핑경험도 이야기 하도록 한다.

세 번째 제시한 교수-방안의 경우에는 화폐의 종류와 화폐에 등장하는 한국 역사 속의 유명한 인물 이야기를 함께 연관 지어 설명하는 교수-방안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는 유용할 것이다.

【표31】 교수-학습 방안 3

학습 주 제	화폐의 종류와 쇼핑		학습 시 기	연 중
학습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화폐 종류를 구분한다. ● 지역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한다. ● 물건을 구매할 때 필요한 간단한 한국어를 익힌다. 			
학습 단계	문화 요소	교수-학습과정		
학습 전 단계	문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화폐 종류 구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화폐 종류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폐(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원) · 동전(오백 원, 백 원, 오십 원, 십 원) - 한국의 화폐 구분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화폐로 구분하기 · 게임으로 화폐 구분하기 ▶ 물건 구매에 필요한 한국어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입니까? - 다른 것은 없습니까? -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습 단계	문화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 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할 물건 정하기 - 쇼핑 액수 정하기 - 쇼핑 장소 정하기 ▶ 재래시장에서 물건 구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 구경하기 - 현금으로 물건 구매하기 - 거스름돈 확인하기 		
학습 후 단계	문화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의 화폐 소개하기 ▶ 재래시장 다녀온 느낌 말하기 		

이상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생활 범주의 교수-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언어생활과 관련된 문화 항목들은 문화 체험보다는 교실에서의 강의 형태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문화체험을 위주로 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이 실제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입증할 검증 시간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다.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한국사회와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수업의 효율을 높이며 나아가 귀국 후에는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는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항목을 선정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나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울산 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을 바탕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문화 항목을 선정하였다.

문화 항목 선정을 위하여 문화의 범주를 ‘언어생활’, ‘일상생활’, ‘직업생활’, ‘한국사회’,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 6개로 정하고, 6개의 범주 아래 2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 항목들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초급 단계를 바탕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필요한 것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화 항목은 한국어 교육 표준 등급과 관계없이 추가하였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은 교수 상황을 분석하여 문화체험을 통한 교수-학습 방안을 문화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이라는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학습 전 단계, 학습 단계, 학습 후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습할 시기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문화 항목을 연관지어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수업 언어도 한국어, 영어를 모두 허용하는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첫째, 체류기간이 짧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한국어 문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한국어 실력이 초급 수준이라도 성인 학습자들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므로 한국어 실력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문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 상황에 있지 않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근무하는 동안 타 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나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만의 문화 그룹을 이미 형성하고 있으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체류 초기에 한국어 문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서 그들만의 문화 그룹에서 한국에 대한 바른 문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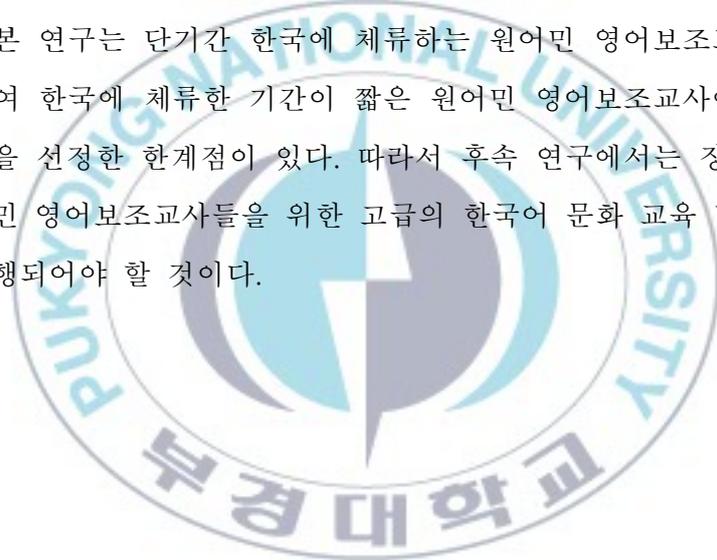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문화 항목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선정된 문화 항목과 학습자의 요구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연수하는 기관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문화 항목들을 원어민 협력교사들에게도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원어민 협력교사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필요한 문화 항목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근거리에서 매일 접하는 협력교사들이 문화 교육의 강사가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어 문화 교육을 한국어 학습 상황과

분리하여 한국어 학습 상황에 있지 않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도 학습 가능한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논의가 한국어 학습 상황에서 문화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형태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 상황과 무관하게 한국어 문화 교육이 필요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제시할 수 있는 문화 항목을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의 검토를 통한 문화 항목 선정으로 표준화 된 모형이 개발되기 이전의 연구보다 객관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특징을 반영하여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필요한 문화 항목을 선정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체류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위한 고급의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승혜(2002), “재미 교포 성인 학습자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분석 연구”, 한국어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승혜 외(2010), 『한국문화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 강현석 외 역(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교육과학기술부(200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EPIK)의 사업 계획서 및 사업진행현황,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구선희 외(2008),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방안 연구: 전래 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권성미(2010),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학습자 참여적 한국어 문화 교수·학습 모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7-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금지아(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비교문화 방법론을 적용한 교육방안 개발”, 국어교과교육연구 17, 국어교과교육학회
- 김남현(2001),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2008), “공교육기관 원어민 영어교사의 한국 문화와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2003), “한국 거주 원어민 교사의 한국 문화와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현, 김평희, 박기순, 신인아, 이두언, 정현숙, 최윤희(2001), 『한국인

- 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수산나(2007),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의 생활문화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10),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현(2012), “문화 체험을 통한 읽기·쓰기 통합 교육-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은주(2008), “원어민 협력수업의 이해 및 교사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장규(2011), “초등학생의 영어 발화분석을 통한 원어민 보조교사 협력수업 개선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렬 외(2009),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21-3, 팬코리아 영어교육학회
- 김정선(2005),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11), 『한국인의 문화간 의사소통』, 서울, 한국문화사
-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2010-03-28,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2011-01-44, 국립국어원
- 김춘희(2007),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의 효용성 분석 : 강원도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인(2007), “심화교양으로서의 ‘문화 간 의사소통’ 수업모형”, 외국

- 어교육연구 21-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4),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세계 속의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학”,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박숙영(2007),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가치문화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론』, 서울, 한림출판사
- 박혜정(2008), “한국어 교재의 문화항목 연구 : 초급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장국 외(2006), “국제화와 문화간 의사소통”, 진리논단 12, 천안대학교
- 성광수(2001), “한국어에 있어서 몸짓과 발화와의 관계”, 이중언어학 19, 이중언어학회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송지숙(2010),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장열(2004), “울산의 도시특성에 따른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인(2004), “시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정치·사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윤미진(2007), “국내 원어민 영어교사 교육 실태 및 효율성 연구 : 참여만족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향(2010),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재 고찰”, 이중언어학 42, 이중언어학회
-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교육: 언어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미혜(2008), “국내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성호(2004), 『교육 과정 개발의 원리』, 서울, 학지사
- 이은숙(2010),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고찰”,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회
- 이은정(2008), “다문화 시대의 문화교육의 방안”, 언어와 문화 4-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재영(200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식조사에 나타난 학교 영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임(2008),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활용수업의 실태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경(2006), “원어민 보조 교사의 영어 수업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2012), “현대 단편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재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학술대회 논문집 20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임경순(2005),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안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4, 한중인문학회
- 임금복(2009),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 나타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 전혜영(2008), “원어민 교사와의 협동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식 및 현황 분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매라(2009),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옥이(2011),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안과 내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조원태(2008),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학습 및 적응 실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경(2012), “교사의 학습자 모어 사용이 교실 상호작용과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향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 외(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요목의 개발”,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2004),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향록(2010), 『한국어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 서울, 한국문화사
- 조현용(2003), “한국어문화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 조현용(2004), “한국어 교수 상황과 수업 설계 연구”, 한국의 민속과 문화 8,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조현용(2007), “한국인 비언어적 행위의 특징과 한국어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 조화영(2009),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교육의 방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경(2008), “원어민교사 활용에 대한 초등영어교육 현장의 목소리:현황
과 개선 방안 탐구”, 외국어교육15-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최희경 외(2010), “원어민 영어교사와 초등학생간의 의사소통단절 유형과
보완 전략 연구”, 초등영어교육16-2, 한국초등영어교육
학회
- 한상미(1999),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인 교육 방안: 의사
소통 민족지학 연구 방법론의 적용”,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선(2011),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한국 문화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기선(1995),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분류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과학15-1, 고려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 Brown. H. D.(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Third Edition, Pearson Education
Korea. -권오량·김영숙 역(2008), 『원리에 의한 교수 제3
판』, 서울,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Nancy Bonvillain(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The
Meaning of Messages, NJ: Prentice-Hall. -한국사회언어학
회 역(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서울, 한국
문화사
- Ryu Hoyeol(2003), Communication breakdown and its repair in the
beginning English classroom,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3, 91-111.

Zoltan Dörnyei(2003), Questionnaire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박명수 역(2007), 『외국어
연구를 위한 설문지 작성 방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인터넷 사이트 자료 >

EPIK 공식홈페이지, <http://www.epik.go.kr>

JET 공식홈페이지, <http://www.jetprogram.org>

문화체육관광부 공식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부록 < 설문조사 > ■

Questionnaire

Hello. My name is Youngae Bae. I'm a graduate student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joring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get information from native English Teachers, in order to understand your requirements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programs.

Your answers will be kept confidential and will only be used as data for my thesis. I would appreciate it very much if you can take a few minutes to answer the questions below.

I . Personal Information

※ Please check or write the following items.

1	Gender	Female		Male			
2	Age	20s	30s	40s	50s		
3	Education	Bachelor's	Master's	PhD	Other		
4	Nationality						
5	Teaching experience in Korea	None	> 1yr	1~2yrs	2~3yrs	3~4yrs	< 4yrs
6	Certificate	TESOL	TEFL	CELTA	Teaching Certificate	None	
7	Level of Korean language	Novice	Novice Mid	Intermediate	Advanced Mid	Advanced	
8	Knowledge about Korean culture	nothing	a little	average	more than average	a great deal	

II. Experience

9. Do you have any experience with a Korean language/cultural program?

- ① Yes (If so then go to 9-1, 9-2) ② No (If so then go to 9-3)

9-1. Where and what kind of program, and for how long did you attend?

- ① Place : _____
② Type (example → your military/government, foreign university, Korean program, private) : _____
③ Amount of time : _____

9-2. Did the information you gained in the program directly assist you in your teaching Korean students?

- ① A great deal ② quite a bit ③ some ④ not much ⑤ not at all

9-3. Why haven't you attended a program?

- ① There is no program to attend
② I didn't feel the need
③ There was limited space/time available
④ Other (please write) _____

III.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cultural program

10. Do you think a Korean language/cultural program is necessary for a lot of native English teachers in Korea?

- ① Unnecessary
- ② Not very necessary
- ③ Necessary
- ④ Very necessary
- ⑤ Absolutely necessary

11. Would you like to attend a Korean language/cultural program if it is available?

- ① Yes (If so then go to 11-1)
- ② No (If so then go to 11-2)

11-1. What is your main goal to participate in a Korean language/cultural program?

- ①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 ② To communicate with Koreans
- ③ To enjoy Korean life more
- ④ To use it in class

11-2. Why aren't you attending the program?

- ① There is no program to attend.
- ② I don't want to study.
- ③ I don't need to study.
- ④ I am busy with work.
- ⑤ Other _____

12. For Korean language/cultural program, what aspects of Korean culture do you wish to learn?

Please rate the following categories on a scale of 1 - 5 according to how necessary you feel they are. Mark only one number.

5 is absolutely necessary and 1 is completely unnecessary.

	1	2	3	4	5			
	Unnecessary	Not very necessary	Necessary	Very necessary	Absolutely necessary			
①	Korean language			1	2	3	4	5
②	Conversation			1	2	3	4	5
③	Korean food, clothing and shelter			1	2	3	4	5
④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1	2	3	4	5
⑤	Public facilities and system of Korea			1	2	3	4	5
⑥	Seasons and weather of Korea			1	2	3	4	5
⑦	Korean way of thinking			1	2	3	4	5
⑧	Korean hobbies and leisure time			1	2	3	4	5
⑨	Korean economic activity			1	2	3	4	5
⑩	Korean school and working life			1	2	3	4	5
⑪	Korean courtesy			1	2	3	4	5
⑫	Transportation system of Korea			1	2	3	4	5
⑬	Accommodation in Korea			1	2	3	4	5
⑭	Nature, geography and tourist attractions of Korea			1	2	3	4	5

IV. Local culture

13. Do you think a local cultural program is necessary for a lot of native English teachers in Ulsan?

- ① Yes (If so then go to 13-1) ② No (If so then go to 13-2)

13-1. For local cultural program, what aspects of local culture do you wish to learn?

	1	2	3	4	5			
	Unnecessary	Not very necessary	Necessary	Very necessary	Absolutely necessary			
①	Administrative district and main 'dong' name of Ulsan			1	2	3	4	5
②	Main streets and bus line of Ulsan			1	2	3	4	5
③	Features of Ulsan population			1	2	3	4	5
④	Natural landscapes of Ulsan			1	2	3	4	5
⑤	Cities near Ulsan			1	2	3	4	5
⑥	Tourist attractions of Ulsan			1	2	3	4	5
⑦	Factories of Ulsan			1	2	3	4	5
⑧	Department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s of Ulsan			1	2	3	4	5
⑨	Local food of Ulsan			1	2	3	4	5

13-2. Why do you think a local cultural program is unnecessary?

(please write)